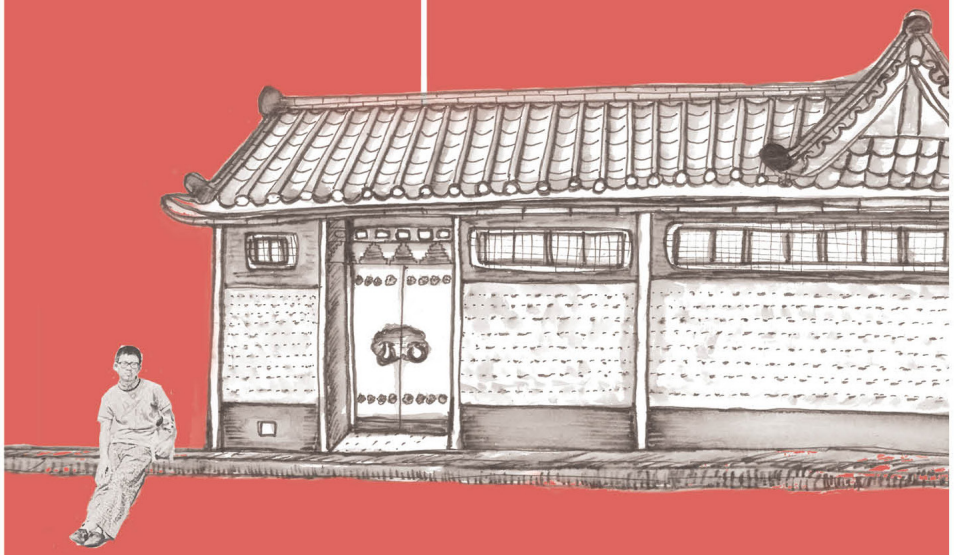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2



삼선동 토박이 이재환의 삶과 꿈

IT 전문 강사 외길 40년

IT 전문 강사
외길 40년

IT 전문 강사
외길 40년

- 삼선동 토박이 이재환의 삶과 꿈

김선정·김진흠·남명희·류옥희·박선자·전우영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2

IT 전문 강사 외길 40년

- 삼선동 토박이 이재환의 삶과 꿈

구술자 이재환

지은이 김선정·김진흠·남명희·류옥희·박선자·전우영

엮은이 김진흠 **디자인** 노세진

펴낸이 조태권 **펴낸곳** 성북문화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C) 이재환 · 성북문화원, 2020

ISBN 979-11-954544-3-3 03090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초판 1쇄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 주민기록단 교육의 수강생 실습 결과물을 토대로
성북문화원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민기록단 교육

기획 강성봉
교육 김영미
운영 조성윤·김도헌·김지훈·김진흠
미술 교육 안혜리·이새빛·조혜수·최은영

<발간에 부쳐>

성북의 역사 만들기

성북문화원은 2018년 1월부터 성북구청과 협력하여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기록을 모으고 보존하고 공유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주민기록단 양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에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다음 해인 2019년 말에는 '성북마을아카이브'라는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북문화원에서 정리한 지역 콘텐츠와 기록물을 검색 혹은 필터를 통해 탐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후로 꾸준히 온라인 공간을 통해 마을기록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에는 성북문화원에서 다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와 마을아카이브팀의 기록물 수집과 생산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마을아카이브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기록단이 필요합니다. 주민(住民)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마을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주민(主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것을 직접 찾고 자신의 삶을 직접 기록하는

과정과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기록물이야말로 우리 성북마을아카이브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시범운영을 통해 시작된 주민기록단 구술사 교육은 2019년에 두 차례 구술 인터뷰 기초교육을 거쳐, 올해 구술 글쓰기 심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열네 분의 수강생 중에는 작년 교육을 수료하신 분도 있고 새로 참여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을 품고 부지런히 교육과정을 따라와 이렇게 빛나는 성과를 내주신 주민기록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기꺼이 펼쳐내어 공동체와 공유해주신 구술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첫해부터 지금까지 3년간 구술사 강의를 맡아 열정적으로 수강생들을 이끌어주신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김영미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술자가 미술로 생애사를 표현하는 활동에 도움을 준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안혜리 교수와 학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기록단 운영을 위해 애쓰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에 감사드립니다.

성북문화원은 앞으로 주민기록단이 우리 지역에서 펼칠 활약을 기대하며 주민기록단이 걸어가는 길을 닦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년 12월

성북문화원장 조 태 권

<축하의 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역사쓰기

성북문화원의 주민기록단 역사강좌가 성북구 주민생애사 시리즈의 출간으로 이어지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작업을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성북문화원과 성북구청 관계자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또 이웃의 삶을 경청하여 책으로 엮어내는 이러한 뜻 깊고 아름다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북구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대 100년의 역사에서 많은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이곳 성북구에 기거하였으며, 지금도 지역사회에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성이 이 시리즈의 출간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역사의 대중화란 전문 역사가가 대중들에게 쉽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강좌의 대부분이 전문가가 대중들에게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란 인간 경험의 총체라고 할 때 역사는 전문가만이 해석하고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훈련을 마친 뒤 자신의 관심과 요구에 맞게 과거를 해석하고 의미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처음 이 강좌를 맡아서 몇 차례 구술사 방법론 강의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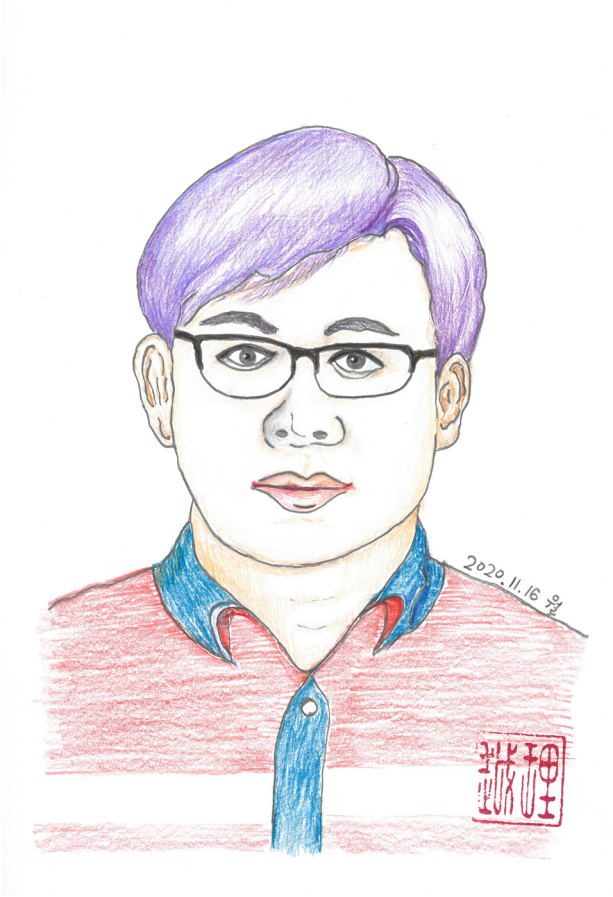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의가 높고 지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북구는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 주거공간으로서의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몇 대를 살아온 토박이 주민들의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을기록단 역사강좌에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를 남기려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열의를 바탕으로 구술생애사 책 만들기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중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이 책을 만들 수 있을까? 특강 담당자였던 저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북문화원 주민기록단 연구원들의 지원과 시민 역사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로 힘든 순간들을 넘겼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자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지역의 역사적 자원으로 내어놓으신 구술자들의 나눔 의지가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위인들만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성실한 일상생활이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만들어온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고 기린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훈훈하고 자부심 넘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성북문화원의 이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들로 우리 근현대사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 영 미



자화상(그림 이재환)

제가 이번에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의 주민기록단 프로그램에 구술자로 참여하여 대화가 가능한 것도 모두 보청기 덕분입니다. 만약 예전처럼 보청기를 끼지 않았더라면 저는 인터뷰에 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성북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

(본문 '두 개의 벽을 깨다' 중에서)

머 리 말

자, 이제 시작입니다

"START! 이게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STAR TEACHER'를 줄인 말이기도 합니다. 스타 강사! 이재환, 지금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IT 명강사 이재환은 강의를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어수선하던 강의실이 졸지에 조용해지며 수강생들의 반짝이는 눈이 모두 그의 입으로 쏠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열정적인 강의는 거침없이 앞으로 내달립니다. 7층 건물의 3층에서 강의를 하면 맨 아래층에서 꼭대기 층까지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는 힘껏 다리를 딛고, 있는 힘을 다해 강의에 열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차 더 커집니다.

그럼, 옆 강의실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의 강의 소리가 다 들리니 좀 조용조용히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에 중이염을 앓은 그는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잘 들리지 않는 줄 알고 그의 목소리는 자꾸만 커집니다. 가는 귀를 먹은 나이 든 어르신들이 고래

고래 고함을 지르며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모르는 수강생들의 반응은 뜨겁기만 합니다. 열정적인 그의 강의에 가끔은 탄성의 소리가 들리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종로에서,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던 그는 어느새 전국구의 유명한 스타 강사로 우뚝 섰습니다. 전자공학과를 나온 그는 지난 40여 년간 오로지 컴퓨터 전문 강사로서 오늘까지 고독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는 80년대부터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을 이끌어 온 선구자로서 IT역사의 한 획을 그은 거목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일생의 무거운 짐이었던 난청의 장애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보청기로 소리를 되찾은 그는 2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궁리를 하며 인생 제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주명리(四柱命理, Four Pillars of Destiny)를 공부하고, 나무와 돌에 서각(書刻)을 하고 펜 드로잉(pen drawing, 펜화)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배운 게 있습니다. 트럼펫 연주입니다. 아마도 그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알리는 팡파르를 온 천하에 울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는 트럼펫을 불고, 동료 밴드 단원들과 신나게 음악을 연주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여태 싱글이지만 외롭거나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하나의 도서관과 같다고도 하고, 한 권의 대하 역사책과도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경주이씨 사평공파의 16세 손으로, 고조부와 증조부가 대한제국 육군 장교였으며, 경기도 포천의 대부호의 자손인 서울 성북구 삼선동 64년 토박이 이재환의 생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맞닥뜨리며 깊은 감동과 긴 여운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만추

성북문화원 성북구 주민기록단

김선정 · 남명희 · 류옥희 · 박선자 · 전우영 일동



차 례

발간사 6
축사 8
머리말 11
약력 17

1부 56년생 삼선동 토박이
빨간 원숭이띠 21
두 여동생 – 심통쟁이 둘째, 당돌한 막내 22
삼선동은 명당이다 24
삼선교는 넓은 평야였다 25
어릴 적 생활 풍경 27
삼선교 천변 풍경 30
낙산 성곽 아래 달동네 32
초등학교 시절 소풍의 기억 35
초등학교 시절 놀이와 먹거리 36
중학교 입시 과외 38

2부 역경(逆境)의 학창시절(중・고・대학)
뺑뺑이 1호 중학생 43
대학 들어가기보다 어려웠던 고교입시 46
외삼촌 따라 구경 간 '석굴암' 술집 48
학원 잡일 하며 공짜로 수강한 재수 시절 50
난청과 늑막염의 고통을 안고서 52
재수 후 수원 아주대 입학 56
어머니의 양말 '오바로크' 부업 58
실패한 고막 이식 수술 60
완성하지 못한 졸업 논문 61

3부 IT 전문 강사 외길 40년
아주대 졸업 후 유성공고 교사로 65
천주교 신부가 된 '도시락 친구' 67

미래 세상은 컴퓨터다! 68
정보처리학원 강사에 도전 70
강사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73
노량진 공무원학원 강사로 변신 76
전국구 스타 강사가 되다 78
호를 '월리(越理)'로 짓다 79
대표 저서 『C 월리를 찾아라』 출판 81

4부 집안 가족 이야기 - 고조부에서 아버지 대(代)까지
경주이씨 사평공파 가문(家門) 87
가계도(家系圖) 89
대한제국 육군 부위(副尉) 이종화 고조할아버지 91
군인 장교의 대를 이은 참위(參尉) 이약우 증조할아버지 92
삼선동 집을 산 할아버지 95
삼선동 집으로 이사하다 97
금의환향한 큰아버지, 홀대받은 아버지 98
쫄딱 망했어요! 99
막내 고모의 애틋한 사랑의 사연이 남아 있는 풍도(豊島) 101
너무 높았던 아버지의 벽 103
아버지의 사진 취미 105
어머니와 정각사 106

5부 꿈의 200살, 희망의 나래를 펴다
독락당(獨樂堂) 113
두 개의 벽을 깨다 116
"저 200살까지 살 거예요." 120
"제 인생 2막의 콘셉트는 교육입니다." 122

6부 이재환과 함께 걸은「삼선동 드림 탐방길」- 포토앨범 131

나의 꿈, 나의미래 / 이재환 142
이재환 생애사 타임라인(Timeline) 145
삼선동 역사 146
에필로그(Epilog) 152


250
삼선교로14길
Samseongyo-ro 14-gil
80
02864

약 력

1956년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 출생
1963년	삼선국민학교 입학
1969년	서울시립농대 병설중학교 (지금의 전농중학교) 입학(1년 재학)
1970년	경일중학교(지금의 서경대학교 자리)로 전학(2개월 재학)
1970년	삼선중학교로 전학
1972년	경신고등학교 입학
1976년	수원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입학 (졸업 후 준교사 2급 자격 획득)
1980년	유성공업고(현 이태원 서울디지텍고) 전자공학 교사 취업
1983년	민컴(주) 계열 서울정보처리학원 강사 취업
1988년	증권회사 C언어 개발(2월~8월)
1990년	노량진 공무원학원 컴퓨터공학 강사 취업
2005년	트럼펫 연주 배우기 시작함 (성북구민회관 '이젠밴드' 멤버로 활동)
2020년(현재)	40여 년간 IT 전문 강사로 외길을 걸어오며 강의를 계속하고 있음.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전자계산기 기사

주요 저서

C월리를 찾아라(대표저서), 정보처리기능사2급, 재미있는 알고리즘(BASIC, PASCAL, C), 정보처리기사 실기 C언어, 컴퓨터 일반(공무원수험서), 프로그래밍 언어론(공무원 수험서) 외 다수

취미

트럼펫 연주, 서각(書刻), 목 조각, 캘리그래피(calligraphy), 캐리커처(caricature), 펜 드로잉(pen drawing, 펜화), 사주명리(四柱命理), 풍수지리

면담 정보

면담자
1차 : 김민식, 조은자
2차 : 김선정, 남명희, 류옥희, 박선자, 전우영

면담일시
1차 : 2019년 12월 18일
2차 : 2020년 10월 21일

면담장소
1차 : 성북구 평생학습관 소강의실
2차 : 성북문화원 소강당

※ 공식 면담 이외에 수차례 비공식 인터뷰 진행

01

56년생 삼선동 토박이

빨간 원숭이띠

제 이름은 이재환(李在煥), 호는 월리(越理)입니다. 빨간 원숭이띠, 병신년(丙申年)에 출생한 1956년생이에요. 금년에 만 나이로 64세 정도 되겠죠. 출생지는 한성대학교 중문(가운데 문)에서 현재의 삼선교로14길을 쭉 내려와서 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한옥이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살고 있죠. 예전의 낡은 한옥은 1992년에 허물고 그 자리에 현재의 다가구주택을 다시 지었습니다.




따뜻한 엄마 품속에서 자라던 어릴 적 모습

두 여동생 - 심통쟁이 둘째, 당돌한 막내

제가 1남 2녀 중 장남으로 여동생이 둘 있어요. 바로 밑에 여동생은 저보다 두 살 아래인 58년 개띠로 지금 변산반도 쪽에 살고 있고, 62년 범띠인 막내는 2005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애틀에 살아요. 어릴 적 기억나는 것은…, 글쎄요, 막내는 나이 차이가 나니까 귀여워했는데 두 살 터울 밑 동생하고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옛날에 대부분 엄마들은 아들을 선호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엄마가 맨날 오빠만 좋아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자꾸 저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 더 잘해주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그랬어요. 먹는 거 좀 더 주고, 가끔은 또 숨겨놨다가 주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심술을 부렸던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동생보고만 하라고 그

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제가 혜택받은 거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동생한테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하지만 막내하고는 나름대로 다정하게 잘 지냈어요. 착했어요. 나이 차이도 났지만 착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내는 의외로 당돌한 면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난 거예요. 사실 미국이민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돈이 많거나, 미국의 유수 기업체에 취직을 하면 정식으로 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우선 관광비자나 그런 걸로 가잖아요. 그런데 동생은 먼저 미국으로 이민 가 있던 친구가 "야, 와도 돼. 와. 그냥 무조건 와." 그렇게 친구가 그냥 와도 된다니까 정말로 무조건 갔어요. 네 식구 모두요. 여동생 부부는 관광비자로, 또 아이들 둘은 학생비자를 내서 떠난 거예요. 와, 용감하죠? 허허허….

그런데 영주권을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았죠. 여동생 가족이 미국으로 가 있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엔 비교적 쉬웠어요. 영주권 받기가.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강경하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멕시코 국경 지역에 담벼락까지 쌓고 난리를 쳤잖아요.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중학교 때 미국에 가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된 거지요. 아들이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권이 나와요. 미국에선 아들이 시민권이 나오면 부모는 당연히 영주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생 부부는 영주권이 나왔는데, 이제 누나인 큰조카가 문제인 거예요. 네 식구 중 그 아이 혼자만 영주권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며 영주권 나오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서둘러 시집을 갔어요. 결혼할 나이

도 됐으니까요. 결국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와 결혼해서 큰조카도 영주권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민 간 막내 여동생 식구들 모두 시애틀에서 잘살고 있어요. 안심하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조카 둘 다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도 못 가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데 공부가 잘 안된다더군요.

삼선동은 명당이다

제가 태어난 삼선동은 참 좋은 동네입니다. 명당이지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동네였어요. 저희 집 주변에 교수님들과 산림청장이 살았고, 그 외에도 유명 인사들이 많이 몰려들어 와 살았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골목이 예전에는 양쪽 쭈욱 다 한옥이었어요. 그 마지막 집에 투 스타 장성이 살았는데 세단이 있었어요. 그 당시 차 없는 시절에 세단은 삐까뻔쩍, 완전 최고였죠. 또 그 앞이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집이었죠. 크게 지은 빌라 두 채에 수영장까지 있는 엄청 넓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바로 위쪽에 유일하게 2층 양옥집이 한 채 있었어요. 6.25 때 야전병원으로 쓰던 집인데, 윤석민 대령이 거기 살았어요.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되셨죠. 또 가수 김추자 씨도 있었지요. '님은 먼곳에'를 부른 김추자 씨는 경동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코미디언 탤런트 구봉서 씨도 저희 집 위쪽의 구세군교회 앞에 사셨어요. 그러구 보니 삼선동 집 주위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네요. 그런 분들이 살다 보니, 그래서 삼선동은

명당입니다. 예, 명당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를 받을 수 있는 동네예요. 사고 안 나는 그런 동네죠. 사실, 명당이란 어떤 뭐 미신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한성대학교에서 내려다본 삼선동 일대 모습

삼선교는 넓은 평야였다

삼선교(三仙橋)는 삼선평(三仙坪)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어요. 이곳이 원래 삼선동, 동소문동, 동선동 일대의 넓고 평평한 들판이어서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또 다른 유래는 삼선동 남쪽 옥녀봉에서 한 옥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세 신선과 노닐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렸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옛날에 삼선평[1]은 굉장히 넓은 평지였다는

1 삼선평(현 성북구 삼선동, 동소문동 일대의 들판)은 조선 후기 군사 훈련장으로 쓰였고, 갑오개혁 이후에는 축구, 육상 등 각종 스포츠 경기장과 각 학교 운동회 장소로 활용되었다.(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이야깃거리)

걸 알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삼선평은 낙산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는데, 삼선교 왼쪽으로는 성북동이 되고, 오른쪽으로는 돈암동, 안암동,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미아리고개, 거기서 미아동, 길음동이 되었죠. 어쨌든 도시화의 물결에 떠밀려 삼선평의 넓은 평야는 점차 사라지고 빌딩과 아파트 군락지로 변모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의 강북구나 도봉구는 없었고 성북구만 있었어요.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새로 분구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북구가 굉장히 넓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북구에는 유난히 대학교가 많았어요. 그에 비해 서울의 중심인 4대문 안에는 대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아마? 암튼 성북구는 '대학구'라고 할 정도로 대학이 많았어요. 현재 8개 정도의 대학이 성북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삼선교 분수 광장에 가보셨어요?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곳에서는 연중 다양한 축제가 열려요. 매년 9월에는 라틴아메리카 축제가 열리고, 삼선동 선녀축제도 이곳에서 열리죠.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아무런 행사도 열지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삼선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땐 국민학교였죠? 그 삼선초교 교가에도 보면 삼선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넓은 삼선평, 평야 지대 삼선동, 아주 좋은 동네였습니다.



1956년 개교 당신의 삼선국민학교 교가. 1988년에 변경되었다.

어릴 적 생활 풍경

그다음에 제가 어릴 적 60년대 삼선동의 생활 풍경을 떠올려보면요, 엿장수... 많았죠. 또 번데기 장수, 변소 치는 사람, 뭐 그런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폐지 주워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는 넝마주이라고 그랬어요. 등에 커다란 망태기를 메고 다니며 집게를 사용하여 폐품을 수집하였습니다. 생계가 워낙 어려울 때니까 밥 얻으러 다니는 거지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딱딱이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당시 밤 12부터 통행금지가

있을 때니깐 밤 11시 30분 정도면 딱딱 딱딱이를 치며 통금을 알리고 다녀요. 그런데 통금시간과 상관없이 소경(小卿)이 지나다닙니다. 요즘은 눈이 먼 사람을 시각장애자라고 하지만 예전엔 장님, 맹인, 봉사, 참봉, 소경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렀어요. 특히 맹인 점복자(占卜者)를 판수(判數)라고 했어요. 아무튼 당시 소경은 한밤중에 피리를 불고 다녔어요. 직업이 안마사여서 특별히 통금시간에도 다닐 수 있게 허가를 해준 것 같아요. 사람들은 피리 소리를 듣고 소경을 불러 집에서 안마를 받아요. 그게 지금은 안마시술소로 바뀌었지만요. 그 외에 맹인들이 하는 직업이 점을 보는 일이었어요. 미아리 고개에 점집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원래 서울역 앞 남산에 있다가 이곳으로 쫓겨 온 거죠.



미아리 고가도로 아래의 점성촌 풍경 (1990년)

처음에 미아리고개 양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대문에서 남산

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점집이 많았는데, 그게 모두 사대문(四大門) 안에 있었으니까 그걸 내쫓으면서 미아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미아리고개 고가도로 양쪽 밑으로 점성촌을 이루어 번성했죠.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장사가 안되죠.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지만 제가 종암동 평생학습관에서 사주명리(四柱命理)[2]도 공부해보았지만 점은 정말 멋진 과학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기 삶의 운명을 파악하고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게 발전을 꾀해보자는 학문인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점쟁이들이 얘기할 때 당신의 운명은 이러저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제가 사주명리를 봐주는 사람한테 갔을 때, 어떤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따라가잖아요. "오! 당신은 의사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고 그렇게 되고 싶어지거든요. 하지만 '그래, 야, 나 의사 된대.'라며 가만히 앉아있으면 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사주명리는 미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자기의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2 사주명리(四柱命理, Four Pillars of Destiny) 또는 사주팔자(四柱八字) 혹은 팔자명리(八字命理)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네 간지(Sexagenary cycle)(干支)에 근거하여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학문이다. 사주는 10간과 12지를 조합하여 계산하므로 60갑자, 즉 육갑으로 표현된다. 사주가 그 사람의 운세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을 명리(命理)라 하고, 사주를 분석·종합하여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짚어보는 것을 추명(推命)이라 한다.(출처 : 위키백과, 검색일 : 2020.12.28.)

삼선교 천변 풍경

1960년대까지 삼선교를 지나는 성북천[3] 물은 맑았습니다. 개천가에는 복숭아나무가 많았고 냇가에서 빨래하고 친구들과 고기도 잡으며 놀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1967년 즈음까지 수영하고 놀았다면 이해가 되실까요? 성북천 위쪽의 삼청각 옆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성북천 발원지 샘이 있어요. 숙정문 아래 계곡이지요.

그래서 성북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맑았어요. 그런데 60년대 말쯤부터 갑자기 물이 더러워졌어요. 삼선교 성북천을 복개하고 건물이 들어서면서부터였죠. 아마 1968년일 겁니다. 복개를 시작한 해가.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 건물을 지었습니다. 1층은 상가이고 2, 3, 4층은 시민아파트였습니다.



철거를 앞둔 시점의 삼선상가아파트(좌)와 나폴레옹 과자점(우)

3 성북천은 북한산 서쪽 구준봉에서 발원하여 성북동, 삼선동, 돈암동, 보문동, 안암동을 거쳐 청계천으로 합류하는 개천이다. 특히 안암동을 지나는 구간은 안암천, 안감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02년 성북천 복원, 정비공사에 착공하여 2019년 현재 성북아파트~한성대입구역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복원되었다.(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이야깃거리)

아, 그 유명한 나폴레옹 제과점 건물도 있었어요. 지금의 삼선교 사거리 분수 마루가 있는 곳이죠. 2층에 탁구장이 있어서 탁구도 엄청나게 많이 쳤습니다. 나폴레옹 제과점이 유명해진 이유가 빵을 조금 만들어서 빵이 일찍 떨어지면 사람들이 '아! 이 집 빵이 맛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또 더 유명한 곳이 돈암동에 있는 태극당 빵집이었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거기서는 선도 보고 예식장도 있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전차 종점이 미아리고개였어요. 높은 미아리고개가 바로 시작되는 지점에서 전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전차가 느리니까 막 달려가서 공짜로 올라타고 그랬어요. 60년대만 해도 전차가 남대문, 동대문 옆으로 줄줄이 통과하고 그랬잖아요. 미아리에서 출발하면 제일 먼 곳이 원효로 쪽이었고, 대개는 사대문 안쪽에서 동대문 이런 쪽이 아마 종점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종점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이쪽 종점은 돈암동 미아리고개 바로 밑인데 가는 쪽에서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또 개천가에 극장 건물도 있었어요. 동도극장이라고. 지금의 우리은행과 하이마트 건물이 있는 부근이었는데 극장 바로 뒤에 성북천이 흘렀어요. 그런데 개천가에 건물이 들어서며 하수구로 구정물을 마구 흘려버리는 바람에 개천물이 썩어서 물고기도 다 죽고, 목욕도 빨래도 수영도 할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개천이 되어버렸어요. 삼선교 상류 성북동 쪽도 복개를 했죠. 그렇게 지내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성북천 복원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삼선교에서 남쪽 청계천 합류점까지만 복원이 되고, 삼선교 북쪽은 아직

복개된 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된 성북천은 예전의 더러웠던 자취는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가끔 깨끗한 물소리가 들려주는 편안함을 즐기며 성북천을 걸어요. 그러면 어릴 적에 친구들과 수영을 하며 놀던 때가 엊그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낙산 성곽 아래 달동네

낙산은 종로구 이화동, 동숭동, 창신동, 동대문구 신설동, 성북구 보문동, 삼선동에 걸쳐 있는 산으로, 현재 낙산공원과 성곽 주변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주거지로 개발되었어요.

예전에는 낙산[4]에 배나무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화동이란 동네가 생겼고, 동쪽 아래로는 삼선동과 낙산동이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곽 바로 밑에는 거지들이나 생활이 궁색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세월이 지나며 엄청나게 많은 판자촌이 다닥다닥 불어났죠. 그래서 그런 비탈진 언덕에 형성된 마을을 달동네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서울에는 삼양동, 봉천동 등 여러 곳에 달

4 낙산(125m)은 성북구 삼선동, 보문동이 종로구 이화동, 창신동, 숭인동과 맞닿는 경계에 있는 산이다. 한양도성의 내사산(內四山) 가운데 동쪽에 해당하며, 남쪽 끝자락에 흥인지문(동대문)이, 북쪽 끝에는 혜화문(동소문)이 위치한다. 조선시대 낙산은 풍광이 좋아 이름난 별장 단지를 형성한 곳 중 하나였다. 낙산이 주거지로 개발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일제의 소위 '근대화' 정책으로 토지를 상실한 지방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이들은 옛 한양의 외곽 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낙산 자락도 그중 하나였다. 낙산 자락에 살던 대다수가 '토막'이라는 기초적인 주거 시설을 짓고 살았는데, 이들을 흔히 '토막민'이라고 불렀다. 현재 낙산은 낙산공원과 성곽 주변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주거지로 개발되었다.(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이야깃거리)

동네가 형성되었는데, 삼선동 장수마을[5]도 그런 동네의 하나였지요.



옛 달동네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장수마을 골목길

하지만 낙산 달동네 아래 삼선교와 성북천 주변의 너른 평지에는 그것과 다른 모습의 마을이 형성되었죠. 달동네 사람들보다는 다소 윤택한 사람들이 살았고 집은 거의 다 한옥이었어요. 저희가 살았던 집도 그런 한옥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달동네에 비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연탄이나 석유난로 같은 걸 썼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한옥마을을 부자 동네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일이 없으니까 구걸을 하며 연명을 했죠. 그러니 직업이 거지였어요. 또 삼선교 다리 밑에도 거지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한옥마을은 그래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동네였으니까 그들은 깡통 하나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좀

5 삼선동 장수마을은 한국전쟁 후 서울로 모여든 서민들이 움막, 천막집, 무허가 판잣집 등을 짓고 삶의 터전으로 삼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마을 뒤쪽의 한양도성 성곽 아래 가파른 구릉길을 따라 작고 나지막한 가옥들이 옹기종기 서로 맞붙어 있다. 2008년에 주민협의회를 만들고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마을 내에 작은 카페도 열었고, 마을박물관을 만들어 전시회도 진행하고, 벽화거리도 조성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카페는 없어지고 마을박물관은 을씨년스런 폐허가 되어 관광객의 발길도 끊겼다. 2010년부터 확산된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아쉽다.(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이야깃거리)

달라고 구걸하며 다녔어요. 60년대는 그렇게 모두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겠지만 80년대에 전두환 군부가 들어서면서 강남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때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돈 벌려고 강남으로 다 옮겨갔어요. 저희 집 바로 밑에 살다 방배동으로 이사 갔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 계세요. 제 아버지께서 실직하셨을 때 취직도 시켜주시기도 하며 저희와는 연줄이 깊은 분이었어요. 그분 아들은 지금 산부인과 의사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죠. 그렇게 강북의 삼선동에 살다 강남으로 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의 다 몰라요. 그냥 다 좋은 데로 이사 가서 다 잘 되신 것만 소문으로 듣고 알죠. 저희야 뭐 능력이 없어 놓으니까 그냥 홀로 남았죠. 허허허….



삼선동 한옥마을 옛 친구 집 앞에서

"지금까지 삼선동 한옥마을에 남아 있는 옛집은 불과 서너 채뿐인데, 사진의 집은 저의 어머님과 절친이셨던 집이고, 그 집의 둘째 딸과는 삼선국민학교 동창입니다. 내부도 훤히 알고 있어서 애착이 가는 집입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부잣집이어서 테레비(텔레비전)를 보려고 매일 밤 가서 연속극을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 엄청난 민폐를 끼친 것 같아요. 그 집 아래쪽으로 5번째 집이 저의 집이었어요. 가까운 이웃집이었죠"(이재환의 회상)

초등학교 시절 소풍의 기억

제가 만 7살 때 삼선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집에서 걸어가면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죠. 학교에서는 계절마다 단체로 소풍을 가거나 현장학습을 다녔어요. 남한산성, 북한산성, 동구릉, 그리고 워커힐 있는 데가 무슨 산이죠? 아…, 아차산, 그런 곳으로 소풍을 갔어요. 저급 학년인 1, 2, 3학년 시절에는 정릉이나 창경원 등 가까운 곳으로 걸어서 가고, 4, 5, 6학년은 남한산성이나 아차산처럼 먼 데로 관광버스를 타고 갔어요.



삼선국민학교 입학 기념 사진(1963년 3월)

한 가운데, 학교까지 따라온 옆집 꼬마 왼쪽의 아이가 이재환.
오른쪽에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 분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1학년 6반 나춘례 담임선생님.

그런데 창경원…, 맞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괘씸하더라고요. 임금님이 사셨던 궁궐에다가 일본인들이 어떻게 똥오줌 냄새나는 동물들을 키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좋았

죠. 아무것도 모른 채 구경하며 다닐 때는 신나고 재밌고 그랬어요. 창경원 앞 도로에 차는 별로 다니지 않고 늘 사람들로 꽉 차서 북적였어요. 거리에 차가 별로 없고 신호등도 없는 데다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통제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진짜 무서운 게 뭐였나 하면 말 타고 다니는 순사(지금의 경찰)였어요. 순사들이 말 타고 다니며 사람들을 이리저리 밀며 길을 터주고 정리를 했어요.

말을 탄 순사들! 와, 그때는 어린 마음에 말이 왜 이렇게 커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신기해서 말 한 번 쳐다보고, 말 탄 순사 한 번 올려다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그닥 다그닥 말굽 소리를 내며 다니는 말이 아무 데나 배설물을 싸놓는 거예요. 그러니 길바닥에 말똥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말똥받이(말 기저귀) 없이 다니니 거리가 온통 말똥 천지일 수밖에 없었지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어릴 적 소풍 얘기라면 그 많던 말똥부터 떠오르네요. 허참….

초등학교 시절 놀이와 먹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아이들과 술래잡기하며 놀기도 하고, 딱지 따먹기, 딱지치기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구슬치기도 좋아해서 천여 개도 넘는 별의별 구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딱지하고 구슬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땄어요. 또 비석 치기, 술래잡기도 하고 다방구 놀이 같은 것도 했습니다. 다방구는 술래하나 잡아놓고

숨었다가 터치하는 것입니다. 터치해서 잡아다가 놓는 거예요. 그런 놀이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오징어, 땅따먹기, 이런 것도 했죠. 팽이돌리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 팽이는 잘 돌렸어요. 긴 줄로 팽이를 딱 감았다가 싹 내던져서 손바닥이나 땅바닥, 또는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건데 다른 아이들도 실력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 팽이가 더 오랫동안 도는지 내기도 했어요.

팽이는 원래 둥글고 짧은 나무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쇠구슬 같은 심을 박아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논 건 대부분 총알을 심으로 박은 나무 팽이였어요. 총알 보면 길고 끝이 뾰족하잖아요? 동그란 쇠구슬은 쉽게 닳고 잘 빠져서 그걸 박은 거예요. 집에 있던 그런 팽이가 뭐 열댓 개도 넘었어요. 총알은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았어요. 팽이 모양은 넓적하게 큰 것부터 오뚝하고 조그만 것까지 다양했어요. 나중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나왔는데 에이, 그건 돌리는 맛도 없고 무게감도 없어서 아이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동네 길과 대부분 도로는 지금과 같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다 그냥 흙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길바닥 아무 데서나 구슬치기나 팽이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스팔트는 석유를 증류하고 남은 잔류물로 만든 거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아스팔트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었나 봐요. 86년도 여름이었을 거예요. 제가 서울정보처리학원 강사로 일할 때였는데 2개월 정도 대구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더울 때인 한낮에는 바깥에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위에 녹은 아스팔트가 신발에 쩍쩍 들러붙을 정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골목길에서

"강아지와 찍은 이 사진은 고2 때로 저희 바로 앞집입니다."(이재환의 회상)

도였으니까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지만 80년대까지도 그렇게 아스팔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60년대는 대부분 길이 다 흙길이었어요. 자동차 달리는 길만 간신히 아스팔트였고요.

뭐, 그 당시 먹거리는 떡볶이라든가 꼼장어, 해삼, 멍게, 아이스께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또 '설탕 볶기'가 생각나요. 초등학교 때 참 많이 사 먹었어요. 조금 큰 국자 같은데다가 설탕을 넣고 연탄불 위에 올려놓고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얀 가루(소다)를 넣고 재빠르게 저어주면 둥그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게 달콤한 설탕 볶기예요. 요즘은 가스 불에 볶기를 만드는 걸 가끔 봤어요. '달고나'도 많이 먹었어요. 어릴 적이라 단 음식이 좋았어요. 달고나가 뭐냐 하면 우유예요. 하얀 우유 덩어리. 그걸 작은 그릇에 넣고 연탄불 위에 올려놓고 녹여서 먹으면 달짝지근한 게 맛이 있었어요.

중학교 입시 과외

얼마 전에 삼선초교 앞을 지나던 길에 들어가 봤어요. 지금의 삼선

초교 본관 건물은 나중에 다시 지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 자리에 2층짜리 긴 건물이 있었어요. 그 옆에 깡통 교실이 하나 있었고, 오른쪽 주차장 자리에도 건물이 있었고, 지금의 커다란 체육관은 아예 없었어요. 학교 부지가 넓었는데 학생들이 자꾸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2부제 수업을 하면서 건물도 계속 지었어요. 하지만 다른 학교는 3부제까지 한 곳도 있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 때여서 미국에서 제공해주는 빵, 옥수수빵요, 그걸 주로 먹었어요. 돈 있는 집 애들은 우유하고 빵에 버터 발라서 먹고, 가난한 집 애들은 학교에서 급식받은 옥수수빵을 먹었어요. 저는 그거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하하하….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깡통 교실이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처럼 지은 건데 비닐이 아니라 양철로 덮은 거였죠. 그래서 깡통 교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보기에 멋있게 지었더라구요. 하지만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해버렸어요.

아무튼 당시에 중학교는 시험을 봐서 갔어요. 경쟁도 치열했고요. 중학교로 진학할 학생 수가 워낙 많았을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입시 준비 과외를 해야 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다하니까 안 할 수가 없었지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과외선생님들의 실력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내용이 초등학교 수준이라 별로 어렵지 않은 데다가 어중이떠중이 누구라도 과외를 할 때라서 조금 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과외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물 먹고 공부 좀 많이 한 선생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과외를 했어요. 그렇게 과외공부를 한 애들은 나중에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갔죠. 그런 애들은 과외비가 좀 비쌌지만 앞을 내다보고 공부를 한 거죠.

저랑 같이 과외를 받은 친구들은 조금 뭐랄까, 중간 정도 레벨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4명이 한 방에서 공부했는데 모두 수준이 그러니까 과외선생님은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인마, 중학교 갈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다그치며 밤늦게까지 가르쳤어요. 과외공부를 하다 11시 30분 즈음이 되면 야경꾼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딱딱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딱딱 치며 다녀요. 통금시간이 다 되어가니 빨리 집에 가라는 거지요.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간 적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심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연책과 사회책과 음악책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선생님이 무조건 외우라고 해서 무식하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과외 끝나고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워있으면 간간이 피리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소경이 불며 다니는 피리 소리라고 이미 앞에서 말했죠? 그때는 12시가 넘은 야밤에 안마를 해주고 돈을 버는 소경들이 많이 다녔어요.

02

역경(逆境)의 학창 시절
(중·고·대학)

뺑뺑이 1호 중학생

제가 1969년에 실시된 뺑뺑이[6] 첫 주자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입시 과외를 했어요. 그때 초등학생들 과외가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그런데 6학년 딱 올라가니깐 "뺑뺑이다. 추첨제로 간다." 그러면서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도로 바뀌었어요. 뺑뺑이, 예, 무시험 추첨, 그걸 뺑뺑이 돌리기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뺑뺑이 돌리기 첫 주자예요. 새로운 입시 바람을 몰고 온 선두주자 1956년생이죠.

그때는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경동고등학교 강당에 모여서 물레

6 1969년 2월 5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무시험 진학을 위한 추첨이 실시되었다. '뺑뺑이'라고 불리는 물레 모양의 추첨기를 돌리면 각 중학교의 고유번호가 적힌 은행알이 튀어나오는 방식이었다. 무시험 추첨은 1970년 지방 대도시로 확대되었고, 1971년에는 전국의 중학교에서 입시가 사라졌다.(출처 : 『조선일보』, 2015.2.25.)

처럼 생긴 기계를 오른쪽으로 두 바퀴 돌리고 다시 왼쪽으로 한 바퀴를 샤아악 돌리면 은행알 같은 것이 나왔어요. 거기에 번호가 쓰여 있었는데 지금도 생생한 것이 제 번호가 22번이었어요. “와, 2땡이다.”하며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서울에 강남은 없었어요. 강북만 동서남북 4학군으로 쪼갰어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로 쪼갰는데 제 추첨번호 22번이 서울시립농업대학 있죠? 전농동에 있는 시립대학, 그때는 서울시립농대였고 지금 서울시립대학인거죠. 그곳에 있던 서울 시립농대 병설중학교(현 전농중학교)였어요. 서울시립대학 부설로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 학교를 졸업했으면 1회 졸업생일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니기가 너무 먼 거예요. 집에서 삼선교 쪽으로 나와서 가려면 너무 머니까 창신동을 넘어서 신설동에서 버스를 타고 전농동까지 갔어요. 거기가 비만 오면 엄청나게 물이 고이고 그냥 죄다 논밭이었어요. 너무 멀어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1년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중학교 학군이 6학군으로 바뀌었어요. 여섯 구역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다니고 있는 학교가 제가 다닐 학군이 아닌 거예요. 한 학군 안에서 극과 극이 되어버리면서 저희 집이 학군을 벗어난 거지요. 학군이 늘어나면서 옵션으로 ‘학교를 옮길 사람은 옮겨주겠다.’ 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잘됐다. 너무 멀다.’ 하면서 학교를 옮겼지요. 2학년에 올라서면서 뺑뺑이를 다시 돌렸어요. 그때는 16번이 나왔는데, 경일중학교였어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정릉의 북한산 입구 쪽 산언덕에 있었는데 그냥 대머리 산이었어요. 산 하나만

달랑 있고 그 꼭대기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서경대학교 자리로 학교 가는 게 꼭 등산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학교인 경일중학교를 2학년 1학기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체육이 유도인데, 전교생은 무조건 유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전에 1년간 다녔던 농대 병설중학교에서는 유도를 전혀 안 배우고 온 거잖아요. 환장하겠더라고요. 나만 보면 그냥 냅다 메다꽂는 거예요. 낙법이라고 그러죠. 유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되게 아프더라고요. 학교 다니기 싫은 마음에 '학교 망해라. 망해라.'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아침 등교 시간에 한 1분만 늦어도 교실로 안 들여보내고 30분 정도 운동장에서 뺑뺑이를 돌리다가 보내줬어요. 와우,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 저를 구해준 사건이 생겼어요. 전학한 지 2개월 만인데 백차가 와서 이사장을 잡아간 거예요. 5월 15일이었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밖을 보니까 엥~ 그러면서 백차가 학교 안까지 들어 온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학교 부지를 넓히려고 계속 땅을 사며 등록금을 횡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학교가 문을 닫고 진짜 망했어요. 아마 제 기도발이 먹혔나 봐요. 허허허….

경일중학교가 망하고 난 다음에 건물들이 그대로 흉허물처럼 남아 있다가 한참 후에 그 자리에 대일외국어고가 생기고 나중에 또 그 옆으로 서경대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저는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또 뺑뺑이를 돌렸어요. 재밌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간 곳이 삼선중학교예요. 삼선교 위쪽 동소문동 언덕에 있었는데 학

교 뒤로는 수풀이 많아서 사람이 전혀 못 올라가는 완전히 꽉 막힌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세 번 옮겨 다닌 저는 마지막으로 삼선중학교를 졸업했어요. 뺑뺑이 돌리고 이 학교 저 학교 뺑뺑 돌아다니며 정말 중학교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허허허…. 지금 생각해도 그냥 헛웃음이 나올 뿐이에요.



삼선중학교 시절 집 앞 골목에서 찍은 사진(좌)과 졸업사진(우).
졸업사진의 옷깃에는 학교명인 '삼선'과
학년을 표시하는 '3'이라고 적힌 배지가 달려있다.

"왼쪽 사진은 저희 집 옆의 골목에서 찍은 것인데, 뒤에 자가용 세단이 보이죠? 동네의 유일한 삐까뻔쩍한 세단이었는데 그 집에 장군이 살았어요." (이재환의 회상)

대학 들어가기보다 어려웠던 고교입시

제가 학교 다닐 적엔 고등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3 때는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아이는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과외를 했어요. 그러나 고교입시 제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또 뺑뺑이로 바뀌었지만요. 우리 때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이 진짜로 엄청나게 힘들

어서 '대학입시는 저리 가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년이 새로운 입시 바람을 자꾸 불어오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갈 때 입학시험이 폐지되고 추첨제로 바뀌면서 뺑뺑이를 돌렸고, 다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시험이 무척 어려웠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바람이 엄청 컸던 세대였어요.

3학년 때 1차로 시험을 본 곳이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였는데 떨어졌어요. 그때는 체력장도 봤는데 실력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수학이나 물리는 진짜 잘했어요. 물상! 그때는 물상이었죠. 이런 과목들은 잘했는데 사회, 국어, 영어, 생물은 재미없더라고요. 국어 시간에는 얼마나 무서운지, 시험을 봐서 60점 밑으로는 1점에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가 나오면 둥그런 아이언 자로 때리는데 50점 맞으면 10대를 맞아야 하잖아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종아리 걷고 딱 때리면 맞을 때는 안 아파요. 맞을 때는 안 아픈데 집에 가서 그날 저녁부터 맞은 자리가 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퍼렇게 멍도 들고 그랬죠. 집에서는 선생님이 때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부모님은 "거 봐라, 시험 성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얻어맞았지."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세 번씩이나 뺑뺑이를 돌리며 중학교를 옮겨 다니다 보니 진득하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더라도 중3 때 마음을 좀 다잡고 공부를 해봤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뻔했죠. 그래서 1차 중대부고는 결국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고 2차로 응시한 경신고등학교에 다니게 된 거예요. 경신이 축구 명문고잖아요? 학교 다닐 때 차범근 선수를 자주 보았어요. 그리고 효창

구장이나 서울운동장(후에 동대문운동장으로 이름이 바뀜)에서 경기가 있을 때면 가서 열심히 응원을 했죠.

외삼촌 따라 구경 간 '석굴암' 술집

혜화동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정상에서 성곽이 뚝 끊어졌잖아요. 예전에 혜화동 로터리 쪽에서 삼선교와 미아리고개를 거쳐 의정부로 나가는 도로를 만들면서 낙산과 혜화문 구간의 일부 성곽이 잘려 동강이 난 거예요. 아무튼 낙산에서 쭉 성곽이 이어져 오며 언덕 꼭대기에 혜화문이 있고, 그 아래 거의 수직으로 잘린 담벼락에 아주 넓은 굴이 뚫려 있었어요. 그런 걸 왜 뚫어놨냐면 전시에 대피하기 위한 방공호였어요. 성북구 쪽에 방공호가 거기 하고 한성대학교 본관 들어선 자리에도 비슷한 방공호 굴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막아놨는지 흔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혜화문 아래 동굴에 '석굴암'이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동굴을 술집으로 사용한 거죠. 그것과 비슷한 동굴 술집이 맞은편 담벼락에도 있었다는데 그건 얘기만 들었고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외삼촌을 따라가서 그 석굴암 술집을 구경한 적이 있어요. 외삼촌은 중학교 때부터 삼선동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지내며 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동생 공부시키려고 데려오신 거죠. 저희 어머니는 7남매 중 장녀세요. 외삼촌은 52년생으로 저보다 4살 위였으니까 어머니한테는 아들뻘이나 다름없었지요.

외삼촌은 삼선동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는 시골에서 서당을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외삼촌은 운동을 잘해서 태권도 5단이었어요. 운동을 하는 분이라 동네에서 주먹을 좀 썼죠. 당시 성북구 쪽에 힘깨나 쓰는 소위 '주먹'들이 많았는데, 그들과 함께 다닌 외삼촌은 그래도 좀 좋게 말하면 신사였고, 주먹 쓰는 다른 친구들은 다 건달들이었죠.

당시 통금이 있을 때였지만 늦은 시간에도 외삼촌과 주먹 친구분들을 믿고 슬슬 뒤를 따라 다녀본 적이 있어요. 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쯤 되면 건달 친구분들이 "야, 너 이리 와봐." 하며 저를 불러서는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를 한 바퀴 쭈욱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혜화동 동굴 술집인 석굴암에도 데려가는 거예요. 당시 제가 고등학생 때라 술집에 함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따라서 석굴암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술은 안 마셨어요. 석굴암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보이는 입구보다 안이 아주 넓었어요. 굴이니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굴속이라 늘 어둡지요. 불을 밝혀야 하는데 촛불 대신 값이 싼 카바이드에 불을 붙여 썼어요. 아,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를 흔하게 쓸 수 없을 때여서 그걸 쓴 거죠. 간혹 전기를 쓰는 집도 흐릿한 백열등을 달았어요.

그리고 동굴 술집에서 막걸리를 시키면 안주로 김치, 깍두기, 나물 한두 가지 주고 그랬어요. 외삼촌은 막걸리를 먹고 온 날은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카바이드 막걸리라 그렇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카바이드를 넣은 게 아니었어요. 밀가루와 전분

등으로 막걸리를 생산하던 1960년대에는 시간이 많이 드는 전통 누룩 대신 숙성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는 탄산화합물 같은 걸 넣고 빨리 숙성시킨 거라고 해요. 그래야 빨리 만들어 빨리 팔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요즘 탄산음료처럼 거품도 나고 톡 쏘는 맛도 나고 그러니까 먹기에도 좋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아마 거품이 나는 카바이드로 불을 밝히고 막걸리를 파니까 그처럼 비슷한 거품이 나는 막걸리에도 카바이드를 넣은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옛날의 일이지만 설마 몸에 안 좋은 카바이드를 막걸리에 넣었을 리는 없었겠죠. 허허허….

학원 잡일 하며 공짜로 수강한 재수 시절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재수를 했어요. 바로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친구까지 꼬셔서 재수를 선택했어요. 그 친구는 육사를 봐서 떨어졌고 저는 "그냥 재수 할래, 무조건!" 그러면서 아무 데도 시험을 안 쳤어요. 그 당시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때였습니다.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더 많을 때였을 걸요, 아마?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해도 마음으로 위안은 되었지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렵던 시기라 학원 다닐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해낸 것이 입시학원에서 '기도' 일을 하며 무료로 학원 수강을 하는 거였죠. 강의 끝나면 칠판도 닦고, 책상도 정리하고, 강사들 잔심부름도 하고 뭐 그런 소소한

일을 하는 거였어요. 요즘과 딱 맞는 말은 없지만 환경미화원이 하는 가벼운 일쯤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당시에는 대학 입시학원이 정말 많았어요. 광화문 네거리에서 지금의 지하철 종로3가역까지를 '재수로'라하여 모든 입시학원이 몰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송성문 선생의 '정통종합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YMCA 강당에서는 한 타임에 1,00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였고, 보통 유명 강사를 300명에서 500명을 보유하고 있었죠. 또 홍성대의 '수학의 정석'이나 종로학원을 설립한 정경진의 '수학의 완성' 등의 수학 과목도 수강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당시 학생들의 공부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원이 많았는데도 이름난 웬만한 학원 들어가기가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런 시기에 제가 처음으로 기도 일을 한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입시학원 격인 종로의 EMI 학원이었어요. '삼위일체 영어' 등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영어수험서의 저자인 안현필 선생이 세운 학원이에요. 경기고, 서울고 등에서 영어 주임 교사를 하다가 학원을 운영하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번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이 유명한 학원에서 제가 칠판도 닦고 그러면서 영어도 공짜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제가 학원에서 기도 일을 워낙 착실하게 하니까 저를 눈여겨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시절 유명한 강사가 두 분이 있었는데 영어는 '정통종합 핵심영어'를 가르친 조응호 선생님이고, 또 '수학의 완성'을 가르친 지성구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구 선생님이 저에게 '야, 너는 내 강의만 듣고 공부해.' 그러면서 용

돈을 조금씩 주시면 자장면도 사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성구 선생님이 대일학원으로 옮겨 가면서 저도 같이 따라갔어요. 당시 화신백화점(현재 종로타워) 옆 안국동 쪽에 있었는데 5층 짜리 빌딩의 아주 큰 학원이었지요. 규모가 커서 단과반, 종합반 등 여러 반을 다양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크기가 완전 학교 규모였어요. 요즘 학원은 규모도 작아지고 소수 단위 그룹별 수업으로 많이 바뀌었죠. 대일학원 뒤쪽으로는 상아탑 학원이 있었는데 노을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 강사가 있었어요. 그 선생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세상에 그렇게 물리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리 과목 실력이 더 일취월장하게 됐어요.

난청과 늑막염의 고통을 안고서

그럼 이쯤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며 여태까지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좀 할게요. 저의 학창 시절은 정말 절망과 좌절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시기를 지냈는지 그저 까마득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만 같아요.

돌이켜보면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 한동안 좀 어려웠던 건 별거 아니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잘 살아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신체적 장애가 좀 있어요. 소리를 잘 듣지 못했어요. 아마 5살, 아니면 6살 즈음부터였을

거예요. 난청이 시작된 게. 포천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할머니나 집안 어르신들이 귀엽다며 귀지를 파내 주셨어요. 초등학교 시절 방학 때 놀러 가도 귀지를 파내 주셨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귀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났어요. 그런데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제 귀에서 고름이 나오면 솜뭉치로 닦아주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귀지 파내기를 반복하다 보니 염증이 더 심해지며 청각신경이 손상된 거 같아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너무 자주, 또 강하게 귀지를 파내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또 귀지를 자꾸 인위적으로 파내면 귀의 자가 청소능력이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당시 큰고모부가 의사였는데 제가 중이염을 앓는데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그저 고름이 나오면 솜으로 닦는 것 밖에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늑막염을 앓았어요. 어느 날 남산 어린이 회관에 놀러 간 날이었어요. 계단 옆으로 빗물이 흐르게 만든 경사진 수로가 있었는데, 거길 미끄럼 타고 내려오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굴린 커다란 수박만한 돌덩이에 등을 맞아 늑막염에 걸렸어요. 가슴 통증으로 한 6개월간 치료를 하며 학교도 못 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이염을 앓으면서 양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난청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을 자꾸 회피하게 되고 학교에서 수업듣기도 점점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그냥 버티며 초등학교를 마쳤어요. 당시에도

보청기[7]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박스처럼 커다랗게 생긴 거였어요.



보청기의 진화 : 1950년대 보청기(좌)와 현재 모습(우)

어린 마음에 그걸 목에 걸고 다니긴 정말 싫었어요. 뭐 뻔하지요. 그걸 본 아이들이 별명을 지어줄 텐데 좋은 이름이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놀림만 받을 테고요. 그래서 보청기 낄 생각은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버틴 거예요. 나중에 성능이 좋고 크기도 작은 보청기가 나온 걸 알았지만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보청기하고는 귀를 꽉 막고 살아온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왜 그랬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어릴 적부터의 난청이 저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 잊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60이 넘도록 아예 보청기는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빼버리고 살았으니까요. 그게 마음이 편했어요.

다시 중학교 때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앞에서 말했듯이 초등학교

7 보청기의 진화 : 1950년대에 개발된 크고 투박한 박스형과 만년필형 보청기는 너무 커서 목에 걸고 다녀야 했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여 지금은 배터리가 소형화되고 성능도 훨씬 좋아져서 악세사리처럼 생긴 아주 작은 귀걸이 스타일도 개발되었다.(출처 : 다비치보청기 홈페이지, 보청기의 역사 중에서)

졸업 때까지 그냥 버티다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하고 교실의 자리를 정할 때였어요. 용기를 내서 담임선생님한테 맨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은 맨 앞자리에 앉아도 잘 안 들렸지만요. 그런데 선생님은 가차 없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리 배정을 해온 원칙대로 하겠다면서요. 아마 키가 작은 학생을 앞자리에 앉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좌절감이 참 컸습니다. 장애가 있는 저를 배려해주지 않은 선생님이 정말 야속하고 미웠지요.

그런데 철이 없을 때였지만 그래도 세상 물정 알만한 건 다 알만한 나이였지요. 그때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제,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친일파들이잖아요. 선생을 하려면 뭘 알아야 하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그래도 학교 좀 다니고, 일본 갔다 오고 그러면서 대부분 일본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의 잔재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일본식 사고, 일식 문화가 되게 많이 남아 있었지요.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촌지를 바랐어요. 그것도 일제의 잔재인지는 몰라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촌지를 좀 갖다줘야 뭔가 잘 봐주던 시절이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과도기 현상으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아무튼 다른 학생 부모들이 하듯이 저도 선생님께 부모님이 '촌지' 봉투 하나 챙겨드렸으면 분명 맨 앞자리에 앉게 해줬을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으니 공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국어,

영어 이건 성적이 형편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목들은 많이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읽기 시키죠?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시킬까봐 엄청 겁을 먹었어요. 먼저 학생이 읽고 끝난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잘 안 들리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게 된 과목이 수학하고 물리가 되었어요. 많이 듣지 않아도 되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며 혼자서 공부하기도 쉬웠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대학도 그쪽 계통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재수 후 수원 아주대 입학

대학 재수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드디어 1976년에 수원의 아주공과대학(현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수원까지 통학은 처음에 유신고속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아주대학은 유신학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로 유신고등학교와 유신고속회사도 운영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줬어요. 유신고속버스를 좀 저렴하게 타고 다니게 할인 정기승차권을 준 거죠. 학생들에겐 뭐 거의 스쿨버스나 다름없었어요. 한 1년 그렇게 고속버스로 통학하다가 지하철이 뚫렸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그게 197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지금의 1호선 전철인데 처음엔 이름이 없었어요. 수도권에 다른 지하철 노선이 없을 때여서 그냥 '종로선'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노선이 증설되면서 1호선으로

부르게 된 거죠.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3년에 휴전협정이 되고 나서 애들이 엄청 많이 태어났잖아요.[8] 이른바 7080세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그 많은 아이들 교육을 나라에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예비고사 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진학률이 30퍼센트 정도였어요. 지금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팔구십 퍼센트는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 예비고사 떨어졌다고 해서 "야, 쟤 바보 아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예비고사 떨어졌어도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대학을 가지 못한 제 친구들을 보면 그게 한이 맺혀서 그런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서도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들 많이 다녔어요.

우리나라가 유례없이 사립대학이 많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사립대학이 명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너무 많으니까 소위 말하는 몇 곳의 괜찮은 사립대학만 명문이에요. 기존에 있던 대학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립대학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또 학문보다는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구요.

8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베이비 붐의 사회적 경향에서 태어난 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전후세대,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이른다.(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어머니의 양말 '오바로크' 부업

하여튼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울 때여서 등록금 마련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5살 때인 1961년에 아버지께서 내외흥업이란 제지업체에 다니셨어요. 지금 을지로에 있는 내외빌딩의 전신이라고 해요. 그 당시 아버지는 전차 정기승차권을 사서 출퇴근을 하셨어요. 저는 전차를 타보고 싶어서 가끔 아버지 몰래 그 승차권으로 전차를 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969년에 밑에 직원의 잘못으로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어요. 제가 중학교 막 입학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5년을 쉬셨어요. 어디 가서 "나 취직 좀 시켜주세요." 이런 말도 못 하는 성격이시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안 살림을 꾸려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한성대 아래쪽과 창신동에 양말공장들이 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공장에서 반제품 양말을 받아다 마무리하는 봉조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양말 앞꿈치를 꿰매는 것이었죠. 그때는 동네 여기저기에 그런 일을 하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얘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시면서 봉조기계[9] 한 대를 들여놓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오바로크 기계요. 그 기계로 공장에서 받아온 양말 앞꿈치를 꿰매서 마무리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오바로크 친다'고 했는데, 그때는 오바로크를 집에서 많이 쳤

9 양말 제조과정 : 양말은 먼저 원사를 투입하여 자동편직기로 앞뒤가 뚫린 상태의 양말을 만든다. 다음은 봉조 단계로, 편직 된 양말의 앞코 부분을 꿰맨다. 손으로 한 코씩 연결하는 손봉조기와 기계가 마무리하는 자동봉조기가 있다. 그다음은 납작한 발 형태의 목형에 양말을 끼운 후, 스팀을 이용하여 다림질한다. 후에 라벨을 붙이고 포장하여 마무리 한다.(출처 : 나무위키, 검색일 : 2020.12.28.)

어요. 오바로크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쇠로 되어 있는 틀에 대고 다림질을 했어요. 그런 다음 스티커를 붙이고 시장 판매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공정 중에서 저희는 오바로크 작업만 한 거예요. 봉조가 끝난 양말은 제가 자전거에 싣고 다시 창신동이나 한성대 아래 양말 공장으로 보냈어요. 그럼 공장에서는 가끔 저에게 완제품을 동대문 평화시장 상인들에게 배달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럴 땐 제가 또 자전거에 싣고 창신동 고개를 넘어 동대문시장 상인들에게 갖다주었죠.

오바로크 일거리는 많았어요. 공장 여러 군데에서 양말이 오니까 저희 한옥 마루며 방에 그냥 꽉 차게 쌓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일감이 많았어도 공임이 워낙 싸서 살림에 큰 보탬은 되지 못했어요. 아무튼 집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구로동의 스피커 제조회사인 한국전자라는 회사에 다시 취직이 되셨고, 그러면서 제가 고2 때부터 집 형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일을 계속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 오바로크 일을 도와드리며 저는 저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금융기관에서 단기대출도 받아 대학교 등록금을 조달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주로 초, 중, 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 일 하면서 대출받은 돈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갔어요. 형편이 그렇다 보니 친구들과 여행 한번 못 가고, 더구나 여학생과 데이트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저 돈 버는 일에 매달려 살았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실패한 고막 이식 수술

1976년 봄, 아주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때 제가 만 20세였는데 당시 만 19세 이상 남자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입대 대상자라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검사를 연기할 수 있어서 대학 입학 때까지 미룬 거지요. 어차피 한 번은 가야 할 군대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학 후 머리 박박 깎고 곧바로 신체 검사장으로 갔지요. 그때 저는 난청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어요. 뭐 이런 걸로 군대 면제해주겠나, 라고 그저 가볍게 생각했지요. 신체 검사장에 갔더니 학교 동창들이며, 동네 사람들이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왔더라구요. 아무튼 신체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딱 내리더라구요. 귀까지 검사 다 받았는데도 말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했지요. 그때는 6개월짜리 방위만 받아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현역으로 판정을 내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군의관이 황급히 뛰어오더니, 처음에 귀 검사한 사람한테 가서 "거, 당신 실수했다. 이 사람 귀 아픈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해서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하마터면 군대에 갈 뻔했죠.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릴 뿐만 아니라 귀에서 자꾸 고름이 나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어요.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대학 2학년 올라가서 고막 이식 수술을 했어요. 고름이 나오지 않게 고막을 막고 청각신경을 살리는 수술이었지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이미 죽은 청각세포는 결국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름만 안 나오게 한 수술이 된 거죠.

완성하지 못한 졸업 논문

그러던 중 대학 4년 때인 1979년에 10·26사태가 난 거예요. 그때 저는 한창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는 졸업하려면 꼭 논문을 써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명이 한 조를 이뤄서 썼는데, 함께 논문 준비를 한 학생 중에 이성효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와 절친이었죠. 전자공학과 재학 4년 동안 늘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지낸 '도시락 친구'였어요. 그때는 도시락 싸서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점심시간에는 그 친구와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아무튼 논문은 그 친구하고 제가 주로 쓰고 나머지 두 명은 들러리였어요. 재학 중에 군대를 갔다 온 복학생들이라 그냥 들러리를 서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허허허….

그 도시락 친구하고 열심히 쓴 논문은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데, 택시요금 시간·거리병산제 '메타기(미터기)'를 IC, 즉 집적회로(集積回路)를 활용한 전자식 '메타기'로 바꾸는 연구였어요. 그 시대에는 IC가 주력이었고 LSI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가 앞에 달린 수동식 기계로 된 빈 메타기의 레버(leber)를 딱 꺾어요. 그럼 그때부터 메타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운행하는 바퀴 수에 따라 금액이 딱, 딱, 딱 올라가는데, 이성효 친구와 제가 쓰던 논문은 그걸 전자화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IC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거리와 시간을 동시에 계산해내는 병산요금제 메타기에 관한 연구논문이었어요. 그런데 10·26사태가 나는 바람에 학교 측에서 "그거 안 해도 돼." 그러는 바람에 포기

해버렸어요. 논문을 거의 80퍼센트는 완성한 단계였어요. 안 해도 된다는데 굳이 더 쓸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고 나서 80년 2월에 아주대학을 졸업했죠.



아주대학교 졸업사진 (왼쪽이 이재환, 오른쪽이 '도시락 친구' 이성효)

03

IT 전문 강사 외길 40년

아주대 졸업 후 유성공고 교사로

1980년 2월에 아주대를 졸업하면서 전두환 군부가 들어서니까 취업 길도 100퍼센트 끊겨버렸어요. 경제가 완전히 올 스톱이 되어 버린 상태였죠. 그런데 10·26사태가 나기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호경기였어요. 그래서 현대, 대우중공업, 포항제철 같은 굴지의 회사도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똑똑한 대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3, 4학년 때 미리 "장학금을 주겠다, 졸업하고 와라." 하면서 꼴 정도였어요. 그러면 가난한 학생들은 모두 혹했죠. 그래도 저는 "에이, 나 안가! 지방엔 안가!" 그러면서 장학금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회사 장학금을 받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떡해요.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장학금 받았던 친구들만 졸업 후 곧바로 현대, 대우중공업, 포항제철 같은 데로 다 갔어요. 그리고 취직을 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입사 시험을 봐야 했어요. 합격하면 회사 본관 앞에 합격자 명단이 쫙 붙었어요.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의 합격자 이름을 써서 게시판에 붙였잖아요. 당시에 대한항공 등 입사 시험 안 본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10·26 후 경기가 안 좋아진 다음부터는, 합격자 발표가 개별통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건 안 뽑는다는 얘기에요. 시험 공고할 때 뽑는 인원도 정확히 안 나오고 0명, 00명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건 실제로 안 뽑겠다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전두환 군부가 들어서면서 취업이 어려워졌지만, 그 대신 돈 없는 집 학생도 갈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획기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집 애들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유일하게 용돈을 주는 대학이 사관학교인 거예요. 그다음이 교육대학이에요. 교육대학은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또 많이 갔어요. 그다음은 공과대학 순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저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과 마침 준교사 2급 자격증도 있어서 덕을 봤어요. 그래서 1980년 대학을 졸업하며 곧바로 유성공고, 그러니까 현재 이태원의 경리단 근처에 있는 서울디지텍고 교사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교사가 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전부터 공대 졸업생들한테는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일정한 학점이 되면 준교사 2급 자격증이 나왔어요. 준교사도 교사는 교사예요. 그리고 준교사로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연수를 받으면 정교사 2급 자격을 줬어요. 그래

서 졸업하면서 취업이 안 된 공대 출신 학생은 학교 선생님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천주교 신부가 된 '도시락 친구'

제가 아까 도시락 친구인 이성효와 함께 졸업 논문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바로 유성공고 교사로 갔는데, 그 친구는 서울대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의용공학(醫用工學, 공학을 의학 분야에 적용하는 학문) 분야 공부를 계속했어요. 의료기기와 전자공학을 융합하는 연구라고 했어요. 학교가 대학로 쪽에 있어서 친구한테 가서 프로그램도 같이 봐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컴퓨터를 제가 했거든요. 그 친구하고는 정말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석사학위를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가톨릭대학 신학교에 다니고 있더라구요.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신부가 되는 코스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4년 동안 전자공학과를 함께 다닌 '도시락 친구'가 천주교 성직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 한 일이었죠. 신학교 졸업하고서 독일로 유학을 가고, 다시 프랑스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와서 지금은 수원교구 주교로 있어요. 소위 말하면 그 친구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좀 끗발이 있는 거죠. 하하하….

미래 세상은 컴퓨터다!

아무튼 도시락 친구가 신부의 길을 가고 있을 즈음, 저는 유성공고 교사직을 그만두고 학원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유성공고 교사로 있을 때는 전국에 학생들도 많았고 고등학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선생님 수요가 많았어요. 정규고등학교에서 수용하고도 남는 아이들을 공부시킬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전수학교[10]가 많이 생겼어요. 전수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많이 생기면서 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교사 희망자는 모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 전수학교인 유성공고 교사로 쉽게 취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준교사라거나 전수학교에 근무한다고 해서 교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능력만 되면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고과점수를 높여서 남들보다 빨리 교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교장도 되고 그랬으니까요.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다 됐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낙도에 가서 근무하면 고과점수를 더 높이 받고,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면 그때는 교장 되는 가장 빠른 코스였어요. 가산점이 제일 높았죠. 이후에 제가 정보처리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 선배들이 저한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과목 강의를 듣고 합격해서 다 교장이 됐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10 고등학교 정도에 해당하는 각종학교로 정규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이다. 1970년대부터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취업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교육과정 운영은 같은 계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준하여 편성, 운영되었다.(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요. 그렇게 해서 교직 생활을 계속한 제 나이 또래들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정년퇴임을 했어요.

제가 유성공고 교사를 할 때, 애들이 말은 안 들어도 의리는 있었어요. 저는 3년 3개월 동안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을 때려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두들겨 팬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애들이 워낙 나쁜 짓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집에 가서 고자질을 안 했어요. 오히려 고자질하면 부모가 '넌 맞아도 싸.' 그러면서 꾸중하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면 왜 남의 귀한 자식 때리느냐고 난리가 났겠죠. 그 당시는 정말 말 안 듣는 애들을 개 패듯이 팼어요. 그래도 어김없이 학교에 나와요. 그러고는 하던 버릇이 있어서 어김없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학생들과 계속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불현듯 이건 아니다, 싶었죠. 사실 제 꿈은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을 해도 취직이 어려울 때라 우선 쉽게 갈 수 있는 교사직을 선택했을 뿐이었죠. 저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제 전공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유성공고 아이들에게 전자공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앞으로, 미래 세상은 컴퓨터다."라고 하면서 컴퓨터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군대에 가면 전지에 글씨를 써서 착착 넘기는 '차트'라는 게 있었죠?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그처럼 차트에 일일이 써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교사직을 그만두고 학원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보처리학원 강사에 도전

그 무렵 애플컴퓨터, 8비트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컴퓨터를 보고 놀라던 시절에 제일 먼저 보건사회부에 대형시스템이 들어왔어요. 컴퓨터가 문으로 못 들어가서 벽을 허물고 들어갈 정도로 컴퓨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러다가 컴퓨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컴퓨터를 아주 좋아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조그마한 컴퓨터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초등학생 애들이 게임을 하러 학원에 가는 거예요. 컴퓨터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구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니 초등학교 1, 2학년인데도 영어 알파벳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말 국어만 배웠고 영어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야 영어를 알파벳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80년대의 아이들은 컴퓨터로 게임을 하려면 영어를 알아야만 되니까 알파벳을 스스로 배운 거죠. 지금은 윈도(Windows) 시대지만, 옛날에는 엠에스도스(MS-DOS)[11] 시절이었으니까 프롬프트 앞에 명령어를 직접 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자면 타이핑을 빨리빨리 잘 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타자를 잘 치고, 알파벳은 이미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다 외우는 장점이 있었어요.

아무튼 저도 컴퓨터를 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개인용 컴퓨터용 디스크 운영 체제. 윈도(Windows)가 널리 쓰이기 전까지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되었다. 상표명에서 온 말이다.(출처 : 다음백과사전)

번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에 유성공고 교사를 하면서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당시 IT[12]분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학원이 서울정보처리학원, 중앙정보처리학원, 대한정보처리학원, 이렇게 세 학원이었어요. 그중에 종로 2가에 있던 서울정보처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재수할 때 공부하러 다니던 제일학원 건물에 있었죠.

낮에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퇴근하고서 학원에 갔어요. EDPS(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포트란(FORTRAN), 코볼(COBOL), 어셈블(assemble) 등을 6개월 과정으로 배웠어요. 마침 그때 서울정보처리학원에서 정보처리기사 자격이 있는 전속 강사 채용공고가 났어요. 이때다 싶어서 바로 지원을 했죠. 당시 학원의 전속 강사는 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는 보통 알음알음 인맥 같은 걸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시험 결과는 제가 말 그대로 '수석'으로 붙었어요. 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잘 봤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면접을 보는데 공고 교사라고 하니까 그게 또 플러스알파 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당장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마침 교사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참에 그 기쁨은 더 컸습니다. 드디어 1983년 가을, 서울정보처리학원 강사로 들어가면서 만 3년 3개월 재직한 유성공고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보처리 강사로 새 출발 하여 지금까지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IT분야 교육에 초창기부터 제가

12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집, 처리하고 전달하기 위한 총체적 기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정보기술 분야는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표준화 등 모든 정보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출처 : 매경닷컴, 시사용어 중에서)

한몫을 하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저는 마치 한 줌 샘물에서 시작하여 작은 개울이 되어 흐르다 마침내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정보처리학원에서 처음 강의한 과목은 '정보처리기사'였습니다. 수강생들에게 꽤 인기 있는 과목이었어요. 이 자격증을 딴 학교 교사는 고과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도 남들보다 빨리 될 수 있었죠. 또 당시 군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병과는 단연 전산병이었어요. 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100퍼센트 전산병으로 보직을 받았어요. 편한 자리에다 최첨단 기술을 배워서 제대하고 나오면 취직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서로 전산병이 되려고 하였지요. 그리고 기업체 중에서는 증권회사에서 정보처리기사가 가장 대우를 잘 받는 직종으로 일반 대기업보다도 연봉이 높았고 보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서울정보처리학원에서 강의하는 과목은 인기가 있었고, 또 제가 스타 강사가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정보처리학원 강사 시절 모습. 책상 위에는 8비트 컴퓨터이다.

강사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서울정보처리학원의 민경현 대표는 《경영과 컴퓨터》라는 컴퓨터 잡지를 출판하는 민컴 출판사도 운영했어요. 그런데 돈줄은 출판사가 아니라 학원이었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개강 날에는 자루에 현금이 막 들어가요. 정신없이 바빠요. 개강 날 현금으로 들어온 수강료가 커다란 마대(麻袋, 자루)에 세 개나 되었어요. 수강생 수가 거의 2천 명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새벽반부터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까지, 학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신나게 일했죠. 당시는 학원강사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인기도 좋았죠.

그렇게 정신없이 강의를 하던 어느 날, 문득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것'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프로그램 개발도 해보지 못한 놈이 어떻게 수강생들 앞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나, 좀 창피하잖아요. '안 되겠다. 나도 이제 개발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썼어요. 일단 다시 학원 강사로 돌아오더라도 한번 프로그램 개발 쪽을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야, 정말 나갈래?"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학원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 발전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내주면서 마지막에 명언을 하셨어요. "이 자리, 언제나 남겨둘 테니까 언제든 다시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그때, 저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하러 나갔다가 사장님의 말처럼 결국 다시

돌아왔지요. 제가 옮겨간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근무한 기간은 정말 기억하기조차 싫은 악몽과 같은 시기였어요. 그 회사는 돈만 아는 업체였거든요. 그 업체에서 개발한 게 주식 시세나 계좌 등을 컴퓨터로 조회할 수 있는 '주식조회' 프로그램이에요. 옛날엔 주식을 사면,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현재가'가 얼마고 '매도호가'가 얼마고 '전일종가'가 얼마인지 조회하러 매장으로 직접 갔잖아요. 또 가격등락을 보며 보유한 주식을 팔거나 새로 사려면 매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주식투자를 한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증권회사 지점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컴퓨터로 하자.' 그래서 증권사 전산화를 해준 게 '주식조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베이직(BASIC)으로 짰는데, 베이직은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옛날 애플컴퓨터에다 베이직으로 프로그램 짜니까 너무 느리고, 코볼도 마찬가지로 느렸어요. 그런데 당시 초창기에 C언어라고 있어요. C언어로 하니까 와, 어찌나 파워풀하게 돌아가는지 저도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대신증권을 필두로 해서 동서증권, 동양증권 등 여러 증권회사에 주식조회 프로그램이 다 팔렸죠.

그런데 그 회사에 1988년 2월에 들어가서 8월까지 6개월간 일하면서 집에 들어간 날짜가 1주일도 안 됐어요. 프로그래머들 특성이 그렇잖아요. 밤늦도록 개발하다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오류가 나면 '어, 이거 어디지?' 그러다 보면 자정을 훌쩍 넘기고 집에도 못 갔어요. 그럼 책상에 엎어져서 잠깐 쪽잠 자다가 2시간 더 프로그램 짜고, 그러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렇게 일하며 거의 6개월을 버텼어요.

하지만 문제는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도대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서울정보처리학원에서는 월 100만 원을 받았는데, 80만 원으로 깎여서 갔단 말이에요. 제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좋아서요. 아무튼 그마저도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 배신이잖아요. 나중에 월급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난 이 회사 못 믿겠다, 안 다닌다." 그러고서 회사를 나와버렸어요. 그런 다음 1988년 10월에 광영컴퓨터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했어요. 88올림픽이 열릴 때였는데 당시에 학원 설립 바람이 불어서 저도 그 분위기에 편승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학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던 저는 경영 성과가 신통치 않아 문을 닫고 결국 2년 만에 다시 서울정보처리학원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광영컴퓨터학원 개원식에서 가족들과

노량진 공무원학원 강사로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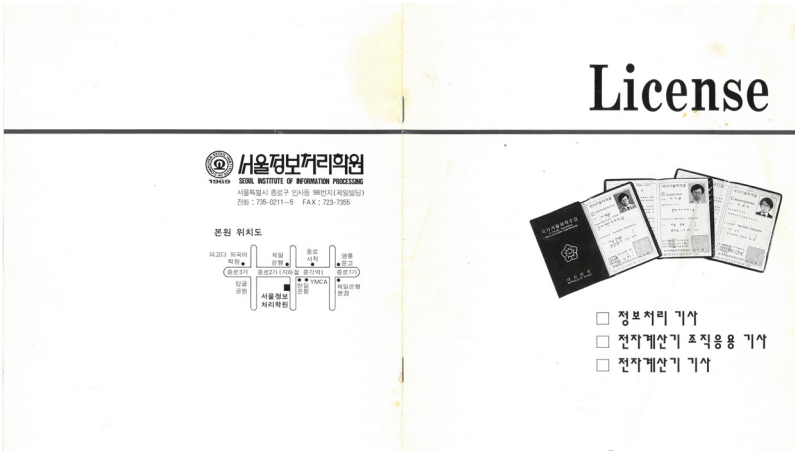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다시 서울정보처리학원 강사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학원 수지가 악화된 시기여서 민경현 대표가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제가 대표를 맡아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공돌이들이 기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으니 경영을 못해요. 잘 안 돼서 결국엔 손 놓고 말았어요. 학원이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비트컴퓨터 조현정씨가 부상하기 시작했죠. 모든 프로그램 개발을 코볼로 했다가 C언어로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비트컴퓨터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는 서울정보처리학원, 대한정보처리학원은 없어졌어요. 중앙정보처리학원은 그냥 자기 건물에서 하니까 간신히 명맥은 유지가 되는 거 같아요.

아무튼 1990년 서울정보처리학원을 폐쇄하고 저는 노량진 공무원학원의 전산직(기술직)과 컴퓨터공학 전문 강사로 변신했습니다. 노량진이 공무원학원의 메카가 된 배경이 있어요. 1970년대 후반, 정부는 인구 분산 정책과 강남 개발 계획에 따라 강북의 명문 중고등학교를 강남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공립고등학교뿐만아니라 사립고등학교도 강남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마포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다 강남으로 이사 갔잖아요? 일반 학원시설도 4대문 밖이나 강남으로 퇴출시켰는데, 그때 서울역과 노량진으로 옮긴 학원들은 점차 큰 규모로 발전하게 되죠.

또한 당시 공무원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자 경쟁률이 보통 20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준비해서는 도저히 합격 불가였지

요. 보통 6~7년은 걸렸어요. 그래서 노량진 공무원학원은 장수생들만 다니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량진은 이제 재수로가 아니라 장수로가 되었지요. 한편 서울대 근처의 신림동에 들어선 고시촌에는 7급 공무원학원도 있었어요.

노량진 학원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강북지역 학교는 대부분 강남으로 이주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량진 학원가는 원래 시내 종로 지역에 밀집한 입시학원을 사대문 밖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에 따라 형성이 된 거였어요. 지금도 노량진에는 대형 학원이 5~6개에다 군소 규모 학원까지 합하면 10여 개의 공무원 시험학원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는 생선보다 수험생이 더 많다.'는 말이 떠돌 정도예요. 수강생이 많은 걸 가까이 있는 수산시장의 생선에 비유한 거죠. 허허….



서울정보처리학원 인수 후, '정보처리자격증'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카탈로그

전국구 스타 강사가 되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 때는 전산직공무원을 최고로 많이 뽑았어요. 전산직만 국가직으로 150명을 뽑았으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은 거예요. 보통은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에 국가직 전산직이 15명~20명, 많아야 30여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산업무 관련 공무원을 많이 뽑자 이제 전산직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국가직 외에 서울시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또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전산직 군무원 채용 시험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노량진 학원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느 날부터 컴퓨터 분야의 스타 강사, 명강사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밤하늘의 수많은 별 중에 가장 반짝이는 강사의 한 사람으로 뜨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를 찾는 곳이 많아지고 강사 활동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시험에 컴퓨터 문제가 필수로 나와요. 문제 중에서 C언어가 있고, 코딩이라는 개념으로 알고리즘을 당연히 물어봐요. 그게 학생들에게는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저는 영등포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쉬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또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면서 최근에는 노량진 공무원 시험학원 경쟁이 더욱 과열되는 현상입니다. 노량진이 뜨거워진 겁니다. 거기에다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학원이나 재수학원과 또 주로 강남에서 영업

하던 어학원까지 오히려 노량진으로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사육신 묘 앞에서 대방동까지 보면 공무원 시험학원뿐 아니라 기술직 자격증, 교원 임용고시, 경찰, 소방, 보건간호 등 수많은 전문 학원이 아주 즐비해요.

저는 사실 학원뿐 아니라 동영상 강의 업체는 안 가본 회사가 없어요. 제일 유명한 동영상 강의 업체 '에듀윌'에서도 강의하고 컴퓨터 전산직 쪽에 웬만한 데는 다 강의해봤죠. 유수의 기업체에도 나가 봤고. 10전투비행단이라고 공군 수원 비행대에도 1년에 두 번 강의하러 나갔죠. 군에서는 부사관들이 진급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하니까 자격증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강의를 한 학원이나 기관 단체가 많은데 생각나는 곳만 말씀을 드리면, 에듀윌 학원 IT전임강사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법무부연수원, 금융결제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코오롱, 삼성전자 및 각 대학교 컴퓨터 특강(동국대, 광운대, 연세대, 홍익대, 서울대,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숭실대, 건국대 등), 수원10전투비행단, EBS교육방송 등입니다.

호를 '월리(越理)'로 짓다

제가 호를 '월리(越理)'라고 지었어요. 서울정보처리학원 강사 시절 후반, 그러니까 거의 1980년대 후반에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조어인데, 뛰어넘을 월(越)자에 이치(理致) 리(理)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어떤 이치를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뛰어 넘어보자, 창의적인 것, 그리고 없는 것을 찾아내 보자는 것이죠. 한 마디로 '월리를 찾아라'는 저의 창의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파인드 월리(Find Wally)'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취직시험 볼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과목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싹 바뀌었어요. 지금 공기업에서 보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는 열 과목이 있는데, 국어와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 수학에 관한 수리 능력, 그리고 컴퓨터를 다루는 정보 능력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관리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 외에 '윤리 능력'도 들어있어요. 시험은 보통 열 과목 중 한 여섯 개 정도 봐요. 1차 시험으로. 그걸 통과해야 전공시험을 볼 수 있어요.

아, 제가 호에 관한 얘기를 하다 잠시 NCS 얘기를 꺼낸 건 '문제해결 능력'을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부터 컴퓨터 강의를 해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사고력'입니다. 문제해결 능력에 필요한.

일반적으로 사고력에는 창의적 사고력이 있구요, 그다음에 뭐냐면, 아이구 또 갑자기 까먹었네, 창의력과 또 토론하다 보면 더 좋은 거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발명은 뭐예요? 바로 창의력이죠. 없던 걸 새로 더 좋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한 과목이 물리예요.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책에 있는 대단원 두 개가 뭐예요? 힘과 에너지에요. 힘은 바로 역학

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이 역학이라고 생각해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역학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물체들이 어떤 힘과 운동의 이치로 작용하는지 그걸 한번 분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멋지게 조합하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겠죠? 그게 요즘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아닌가요? 전부터 이런 생각들을 해오다가, 이제 뭔가 새로운 창의력으로 뛰어넘어보자, 라며 만든 게 '월리(越理)'라는 단어였는데 그걸 제가 호로 쓰게 되었지요.

대표 저서 『C 월리를 찾아라』 출판

지난 40여 년간 강의를 해오며 컴퓨터 관련된 책도 약 20권 썼어요. 대표적인 저서는 C언어를 다룬 『C 월리를 찾아라』 입니다. 그게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잘 나가요. 제 호(號)가 '월리(越理)'라고 했잖아요? 그걸 책 제목으로 붙인 거죠. 참고로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쓴 강의 교재가 『정보처리기능사』란 책이었어요. 이 책은 지금 천주교 수원교구 주교가 된 제 절친인 이성효와 공동으로 썼습니다.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정보처리기능사 1·2급 종합정리 (이론·문제·해설)	공저	명성출판사	1984년
정보처리기사 1급 필기	공저	영진출판사	1993년
정보처리기사 2급 필기	공저	영진출판사	1993년
PC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고급 DOS	단독	영진출판사	1994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1·2급 실기	단독	정보문화사	1995년
정보처리기사 실기 FORTRAN COBOL	공저	크라운출판사	1995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1급 필기	공저	정보문화사	1997년
C 월리를 찾아라	단독	가메출판사	1998년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C	공저	가메출판사	1999년
정보처리기사 필기	공저	가메출판사	2000년
월리(**越理**)를 찾아라! 알고리즘으로 배우는 JAVA	공저	가메출판사	2002년
유레카 전자계산일반	공저	도서출판 좋은사람들	2003년
전산직 프로그래밍 언어론 (EBS 교육방송교재)	공저	도서출판 이그잼	2006년
Eureca 월리를 찾아라 컴퓨터 일반	공저	도서출판 이그잼	2008년
전자계산기 일반	단독	NT미디어	2010년
MaP 컴퓨터 일반 (전산직·계리직 공무원시험대비)	단독	에듀피디	2014년

그런데 학원 생활하던 때에 저를 따랐던 후배 하나가 있었어요. 그 후배랑 같이 도메인 세 개 정도를 샀던 적이 있는데, 후배는 저 때문에 여러 개를 더 사서 가지고 있었죠. 그중에 하나가 '파인드 월리닷컴(findwally.com)'이었어요. 『월리를 찾아라(Where's Wally?)』[13] 라고, 사람 찾는 책 있었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배한테 연락이 와서 그 도메인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파인드 월리닷컴'이 그쪽으로 넘어 가버렸어요. 그때 저는 화가 났죠. 후배가 돈을 받고 줬는지, 그냥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름은 제가 짓고, 그 후배는 그냥 이용만 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배는 그 도메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거죠. 변호사 선임해서 그 회사와 싸울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책 얘기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선배가 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1인 출판사를 등록해서, 새로 나온 책은 제가 편집까지 다 해서 책을 냈어요. 그렇게 직접 출판한 책을 갖고 서점에 갔더니 "책이 한 권이면 못 받아주겠다. 최소한 두 권은 돼야 한다."고 해서 여러 권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출판한 책이 지금도 집에 쌓여 있어요. 요즘 강의하러 나가서도 그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원가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 이렇게 책도 출판하게 되고, 또 강의를 하자면 여러 가지 교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권씩 책을

13 『월리를 찾아라(Where's Wally?)』는 영국인 일러스트레이터 마틴 핸드포드가 만들어낸 어린이 서적 시리즈. 동그란 뿔테 안경에 빨간색 방울이 달린 모자를 쓰고 흰색과 빨간색이 섞인 줄무늬 상의를 입은 월리를 비슷비슷한 옷차림을 한 수많은 사람 속에서 찾는 내용의 책. (출처 : 위키백과, 검색일 : 2020.12.28.)

쓰다가 꽤 많아졌습니다. 대표 저서인 『C 월리를 찾아라』를 비롯해서 『정보처리기능사 2급』, 『재미있는 알고리즘』, 『정보처리기사 실기 C언어』, 그리고 공무원수험서인 『컴퓨터 일반』과 『프로그래밍 언어론』 등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학원을 인수해서 제가 대표로 직접 운영한 적이 있는데, 처음 강사로 활동했던 서울정보처리학원과 그리고 광영시스템, 광영컴퓨터학원 등입니다. 또 동갑내기 동료랑 같이 목사님 설교 원고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그리고 약국 의료보험 수가 프로그램 등을 개발했는데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결국 다 사장돼버렸죠.

지금까지 강의도 하고 나름대로 책도 내고 회사를 직접 운영도 하면서 여러 일을 겪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두 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성공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제 그동안 쌓아온 제 커리어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60대 중반인 오늘까지의 제 생애가 전생(前生)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후생(後生)이 될 인생 2막을 멋지게 꾸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리(越理)를 찾아가는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04

집안 가족 이야기

- 고조부에서 아버지 대(代)까지

경주이씨 사평공파 가문(家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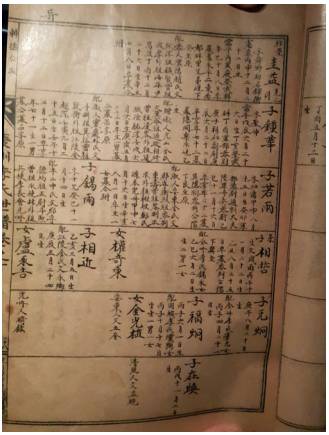
그럼 이제 저희 선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조상님 고향은 경기도 포천이에요. 혹시 우리나라 각 성씨의 종파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세요? 저희 가문은 원래 쭉 올라가면 이항복 선생님 파예요. 그 후 한동안 이항복 파에서 갈라진 찬성공파(贊成公派)로 내려오다가 14대쯤 돼서 한 아들이 벼슬을 한 거예요. 종6품 정도였는데 포천 현감[14]으로 발령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 사평공파(司評公派) 시조가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종파가 만들어진 거죠. 그때부터 저희 사평공파가 포천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

14 현감(縣監)은 조선시대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縣)의 종6품직 관직. 지방수령 중 가장 낮은 직급이나 전국적으로 140인이 파견되어 지방에 파견된 수령의 다수를 차지했다. 임기제한 1,800일이며 절제도위(節制都尉)의 군직(軍職)을 겸임하였는데 후기에는 점차 감치(減置)되어 120여 인까지 줄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요. 그리고 비록 아버지가 종6품 현감이었지만 그 밑에 아들이 종2품 호조 참판을 지냈어요. 벼슬을 하면 옛날에는 월급을 돈으로 줄 수 없으니까 땅으로 줬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나라에서 받은 땅이 포천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경주 이씨 사평공파 시조 이원남 묘비(포천)



경주 이씨 사평공파 세보 중에서(고조부에서 이재환까지)

가계도(家系圖)



이재환의 가계도 (이재환 작성)

이건 저희 집안 가계도입니다. 경주 이씨 사평공파 12세 손인 고조부님부터 16세 손인 저까지 그려본 겁니다. 조선 시대에 사셨던 저희 윗대 조상님 중에는 높은 벼슬을 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저는 조선 말기의 혼란기에 고조부님과 증조부님께서 대한제국의 군인 장교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계도를 이분들부터 그렸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돌림자 쓰는 것 아시죠? 집안의 항렬(行列)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에 공통으로 넣는 글자 말예요. 같은 대(代)에는 같은 글자를 쓰지요. 저희 경주 이씨의 돌림자를 예로 들면 종(鍾), 우(雨), 상(相) 또는 희(熙)와 형(炯), 재(在) 이런 순으로 돌아가지요.

자, 제가 재(在)자 돌림이에요. 그리고 그 위가 형(炯)자나 희(熙)자예요. 저희 아버지 대의 돌림자이죠. 그래서 제 아버지 함자가 이복형(李福炯)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할아버지가 상(相)자 돌림으로 이상철(李相哲), 또 그 위의 증조부가 우(雨)자 돌림으로 이약우(李若雨), 또 그 위의 고조부가 종(鍾)자 돌림으로 이종화(李鍾華),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돌림자가 목, 화, 토, 금, 수(木, 火, 土, 金, 水) 순서대로 돌아요. 제 이름 재(在)에는 토(土)가 들어가고, 아버지 성함 형(炯)에는 불(火)이 들어가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같은 성씨의 사람은 서로 얼굴을 몰라도 딱 이름을 보면 '아, 이 사람이 할아버지뻘이다. 아버지뻘이다. 손자뻘이다.'라고 알 수 있죠. 돌림자는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로 계속 회전이 돼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이름을 지을 때 돌림자를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름은 애를 낳으면 대개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 부모는 돌림자와 상관없이 예쁜 우리말로 애들 이름을 지어주든가 혹은 자신들 기호에 따라 서양식 이름을 붙여주든가 그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싶어요. 예전에는 이름 지을 때 돌림자를 꼭 지켰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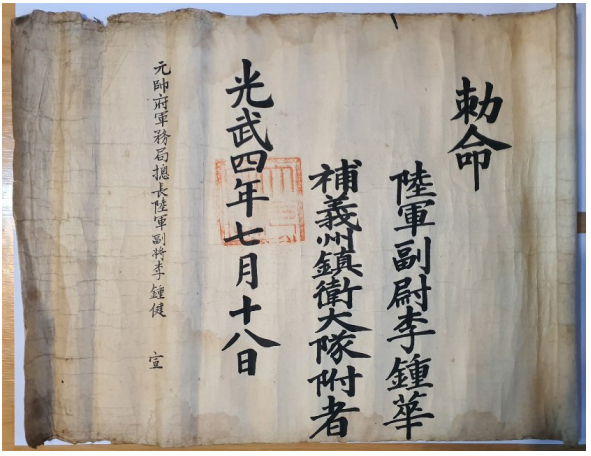
대한제국 육군 부위(副尉) 이종화 고조할아버지

그럼 이제 가계도 맨 위의 이종화(李鍾華) 고조부님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고조부님은 광무(光武) 2년(1898년)에 육군 참위(參尉, 지금의 소위급)로 임명되시고, 2년 뒤인 광무 4년(1900년)에 부위(副尉, 지금의 중위급)로 승진하셨어요. 종4품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 원고향은 경기도 포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시 고조부님은 포천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근무지가 어딘지는 오래전의 일이라서 저는 알지 못해요. 혹시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지 나중에 여쭤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고조할아버지께서 장교 벼슬을 하니까 나라에서 포천에 땅을 하사했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돈으로 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벼슬하신 조상님들이 하사받은 땅을 대대로 물려받으며 포천과 그 주변의 일동면(一東面)과 이동면(二東面) 등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 소유로요. 그런데 후손들이 나중에 그 땅을 다 찾지를 못했어요. 워낙 땅이 넓어서요. 일부

만 찾고, 결국 찾지 못한 나머지 땅은 세금을 안 내니까 모두 산림청으로 넘어가버렸어요. 할아버지 대에 와서 일부 찾은 땅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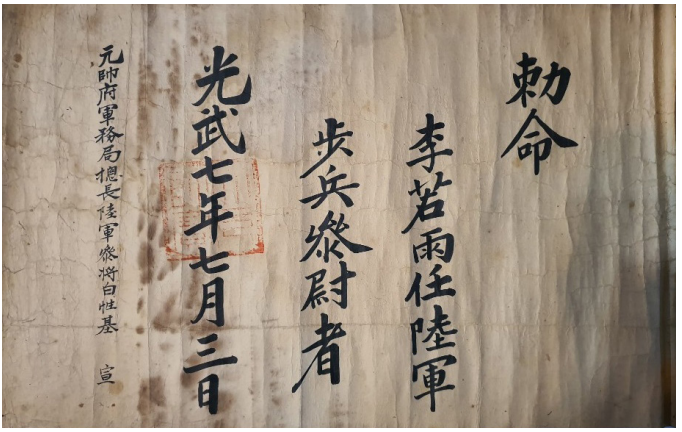
이종화 고조부의 육군 부위 칙명 (임명장)

군인 장교의 대를 이은 참위(參尉) 이약우 증조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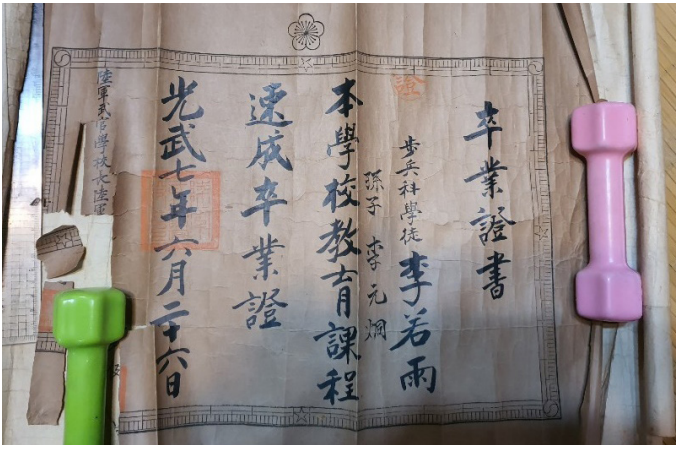
그다음은 이약우(李若雨) 증조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증조부님은 우(雨)자 돌림이세요. 예, 이분도 고조부님과 같이 부자지간에 대한제국 육군 장교를 하셨어요. 증조부님은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광무 7년(1903년)에 육군 참위(參尉)로 임명되셨어요. 당시 증조부님이 졸업하신 학교는 육군무관학교[15],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사

15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는1898년(광무 2) 무관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군관학교. 종래의 훈련대 ·사관양성소(士官養成所) 등을 개편한 것으로서 무관의 교육을 담당하였고 현대적 군사교육과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 학교이다. 1907년(융희 1) 8월 조선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1909년에 폐지되었다.(두산백과)

관학교인 셈이죠. 조선 고종의 황후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아시죠? 1895년에 그 사건 일어나고, 고종은 안전을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약 1년간 머무르다 환궁을 합니다.



이약우 증조부의 육군 참위 칙명 (임명장)



이약우 증조부의 육군무관학교 졸업증서

그때의 일을 아관파천(俄館播遷)이라 하잖아요? 그 후 조정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군대를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신식 군대를

만들게 되는데, 증조부님은 아마 그때 만들어진 사관학교 3회 졸업생인가 그럴 거예요. 1회 졸업생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입학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분의 장교 임명장인 칙명(勅命)은 여태 집안 대대로 잘 보관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임명장을 보면 고조부님은 '육군 참위', 증조부님은 '육군 보병 참위'로 같은 참위라도 직명이 약간 다르게 적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께서도 참위 벼슬을 하셔서 포천에 땅을 많이 하사받으셨어요.



육군무관학교 시절 제복을 입은 증조할아버지 모습

삼선동 집을 산 할아버지



관복을 입은 할아버지 모습
(당시 산림청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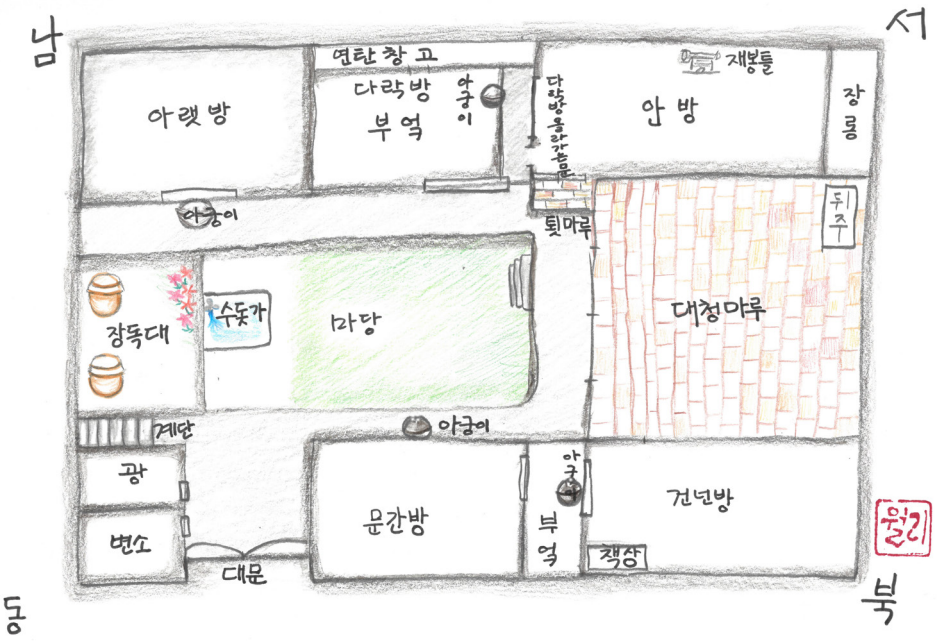
고조부, 증조부 다음의 14세 손인 조부께서는 모두 오 남매를 두셨어요. 큰고모,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리고 밑에 고모, 막내 고모, 이렇게 2남3녀였어요. 모두 포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함께 사셨어요. 오 남매 중 지금은 아버지하고 바로 밑에 고모만 생존해 계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서울 삼선동의 지금 사는 자리에 있던 한옥을 사셨어요. 아마 해방 직후인 46년, 47년, 아니면 48년? 아무튼 6·25전에 사셨다고 들었으니까 그 정도 시기였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그 집을 샀을 때는 대지가 마흔아홉 평이었대요. 그런데 언젠가 토지개발 계획에 따라 야금야금 뺏겨서 지금은 서른 평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6·25를 겪으며 폭격을 맞아서 집이 조금 허물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전쟁 후 수리를 해서 계속 살았어요. 그 집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저와 동생들 모두 다섯 식구가 같이 살다가 두 여동생은 분가를 해서 나가고, 92년에 한옥을 허물고 현재의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지은 다음 제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1992년까지 살았던 삼선동 한옥 모습 (그림 이재환)

당시 집 구조는 뭐 전통적인 한옥이죠. 대문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은 문간방 그리고 왼쪽은 대표적으로 변소죠. 똥을 퍼야하니깐 가장 바깥쪽에 두었고, 그 옆에 조그맣게 광이 붙어 있었어요. 대문에서 곧장 안으로 들어가면 마당이고, 왼쪽은 장독대 또 마당에서 대각선으로 보이는 게 안방이죠. 그리고 대청마루 건너 안방 맞은편에 건넌방이 있고, 그다음에 마당 정면 왼쪽에 아랫방이 있고, 그 옆으로 부엌이 있었죠. 그러니깐 한옥은 구조가 대부분 다 비슷해요. 부엌의 천장 부분이 다락방인데 제 아지트였죠.



1992년까지 살았던 삼선동 한옥의 구조 (그림 이재환)

삼선동 집으로 이사하다

할아버지께서 포천 면사무소에서 일하셨는데 그때 삼선동 집을 사두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4, 5년 후인 6·25 직전에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께 들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삼선동 집을 사두신 이유가 있더라구요.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두 아들 서울에서 교육시키려고 미리 장만해 두셨다는 거예요. 집 주변에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여러 개 있고 그래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는 큰아버지를 공부하라고 삼선동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큰아버지는 집 가까이 있는 경동고

등학교를 다니셨어요. 나중에 할머니께서 “너도 가서 공부해라.”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삼선동 집으로 보내셨다고 해요. 어차피 서울에 형이 있으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공부하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할머니 생각은 원래 장남인 큰아버지만 공부를 시키려고 하셨대요. 저희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함께 지내라고 그냥 딸려 보내신 거구요. 그리고 할머니는 포천에 계속 남아계시면서 고향을 떠나 사는 아들이나 딸네 집에 자주 들르시고 일가친척 집도 안 가시는 데가 없으셨대요. 워낙 나들이 다니기를 좋아하셨대요.

금의환향한 큰아버지, 홀대받은 아버지

삼선동에서 공부하며 지내시던 큰아버지가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귀향 후 1년 뒤에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큰아버지는 육군 하사관으로 군대를 가셨어요. 당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은 일반 병으로 참전했고.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은 하사관으로 갈 수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제대 후에는 고향인 포천으로 다시 돌아가 사셨어요. 포천 집이 땅도 넓고 또 장남이니까 고향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아버지는 더는 공부를 계속하지 않고 포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셨어요.

그런 중에 저희 아버지는 광희중학교와 성동공고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지금의 서경대학교 전신인 국제대학 야간을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퇴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등록금을 안 내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등록금을 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께 굉장히 밉보였던 모양이에요. 포천의 땅이 그렇게 넓고 재산도 많았는데 그에 비하면 등록금은 정말 푼돈 정도였을 텐데도 말이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교육관과는 많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쫄딱 망했어요!

할머니께는 장손인 큰아들이 최고였지요. 큰아들만 키워주고 전 재산을 물려주며 모든 걸 장남에게 맡겨버린 거죠. 큰아버지는 키가 187센티미터로 엄청 컸어요. 그리고 큰아버지는 선대 조상이 예전에 부위(副尉) 벼슬을 한 집안의 장남이라고 해서 포천 일대에서 굉장히 대접을 받았어요. 어쨌든 큰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죠. 다른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께는 삼선동 한옥을 주셨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 그 집을 주신 사연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큰아버지만 위하고 혜택을 주시니까 아버지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받아서 그만 결혼을 하고 저를 낳은 거예요. 아버지가 20살 때죠. 그러고는 일반 병으로 군대에 가버리셨어요. 그러니 할머니도 어쩔 도리가 없으셨겠죠. 아버지께서 그 집에서 계속 기거하

며 공부하다 결혼까지 해버렸으니 그냥 물려주신 거죠. 큰아버지께 준 포천의 그 넓은 땅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시쳇말로 '새발의 피'였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집을 물려받게 되었네요. 허허허….

그런데 포천으로 다시 가신 큰아버지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자식들이 다 크기 전에 할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조금 좋지 않게 얘기하면 집안의 규율을 잡아야 할 어르신이 안 계시니까 엉망이 된 거죠. 사실 고조부님, 증조부님은 육군 장교까지 하신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할아버지와 그 아래 자식들 대에 와서는 빛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게다가 큰아버지께서 사기꾼한테 걸려 선조 대의 어마어마한 땅마저 다 날려버렸어요. 큰아버지께 사기꾼이 접근해서 포천의 그 넓은 부지에 대학을,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분교를 세울 거라고 꼬드긴 거지요. 큰아버지께서 좀 어리숙한 데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 혹하고 안 넘어갈 수가 없죠. 땅문서고 집문서고 뭐고 다 줘버렸대요. 하지만 결국 대학 들어선다는 얘기는 모두 거짓말로 탄로가 나버렸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모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 대에 와서 그 많은 땅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쫄딱 망한 겁니다.

막내 고모의 애틋한 사랑의 사연이 남아 있는 풍도(豊島)

막내 고모는 포천여고를 나오셨는데 졸업 후에는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빨리 승진하려고 자원해서 지방으로 많이 내려와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시골인 포천의 청성국민학교로 온 선생님이 큰집(막내 고모와 가족들이 함께 살던 할아버지 집을 그렇게 불렀음) 사랑채에 하숙을 하셨어요. 그리고 막내 고모가 그분과 연애하셔서 결혼까지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청성국민학교 교사였던 그분이 제 고모부가 되신 거지요. 참, 인연이란 묘한 것 같습니다. 그분과 인연을 맺은 후, 고졸인 막내 고모는 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셨어요. 이제 두 분이 부부 교사가 된 것이지요. 그 당시 낙도(落島) 같은 험지에서 근무를 하면 높은 고과점수를 받아 교장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내 고모 부부는 서해 끝자락의 섬 풍도라는 곳으로 자청을 해서 가셨어요. 그 섬은 인천에서 한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했는데, 교통편이 발달하지 못한 예전에는 말 그대로 쉽게 갈 수 없는 '낙도'였지요.

그리고 제가 경신고 3학년 여름방학 때 막내 고모가 근무하는 풍도로 놀러 갔어요. 74년 여름이었지요. 당시 풍도에는 2층 건물의 자그마한 풍도국민학교[16]가 있었어요. 교실이 한 층당 2개로 모두 4개였는데, 하나는 교무실로 쓰고, 나머지 3개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

16 풍도는 원래 '단풍나무 풍(楓)자'를 써서 풍도(楓島)라고 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섬 주변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풍도(豊島)로 바꿨다. 2011년 기준, 95세대에 169명이 거주하고 있다. 풍도국민학교는 1933년 5월 1일 진명학원으로 개교하였다. 1948년 대부국민학교 풍도분교, 1958년 풍도국민학교, 1986년 대남국민학교 풍도분교, 1996년 이후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장이 되었다. 2016년 현재 총 2학급에 3명의 학생이 있으며, 교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출처 : 안산시 홈페이지)

이었어요. 하얀 페인트 칠을 한 아담한 학교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교실에 2개 학년씩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가 한교실에서 마주 보며 교육을 할 때가 많았답니다. 관사는 학교 건물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대학생들의 농촌이나 낙도 봉사활동이 절정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갔을 때도 풍도에 농활하러 온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이 8명 정도였는데 모두 서울의 명문대생이었지요. 그 대학생들이 아주 존경스러웠습니다



1974년 여름, 막내 고모가 교사로 근무하던 풍도에서

"사진 뒷줄의 맨 왼쪽이 저(이재환), 맨 오른쪽이 고모부, 중간이 막내 고모입니다. 앞줄 맨 오른쪽이 저의 친할머니(고모의 어머니), 앞줄 가운데가 막내 고모 아들, 그리고 나머지는 제 여동생 둘, 큰고모 딸, 큰아버지 아들입니다. 막내 고모 부부가 돌아가시기 전의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이재환 회상)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요. 제가 풍도를 다녀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교롭게도 고모부께서 폐결핵에 걸리

셨어요. 그래서 인천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어쩌다가 그만 주사를 잘못 맞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약물 과용투여에 의한 중독 증세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고모부께서 세상을 떠난 후 막내 고모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장례 치르고 10일 만에 고모부님 산소 앞에서 약을 먹고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모 잡지에도 났었죠. 순애보라고….

너무 높았던 아버지의 벽

사평공파 15세 손인 제 아버지 함자는 이 복자 형자, 이복형(李福炯)입니다. 1936년에 출생하셨으니 금년에 여든넷이시고 삼선1동 노인정 회장을 맡고 계세요. 제가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컴퓨터를 아주 잘하세요. 모든 서류를 컴퓨터로 하시고 액셀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잘 다루시죠.

그런데 아버지와 저하고의 관계에 말 못 할 벽이 있어요. 아버지와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일 년에 대화를 열 마디도 안 합니다.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말이 없어요. 좋게 말하면 아버지의 과묵한 선비 기질 때문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고지식하시기도 했고 좀 무서웠기도 하고 그랬어요.

삼선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공부하라고 다그치기만 하고 놀지는 못 하게 하셨어요. 그때 만화방이 유행이었는데 너무 엄하게 하셔서 만화방은 근처도 못 갔어요. 그 당시

에 만화방에 애들이 왜 갔냐 하면 만화를 볼 때마다 쿠폰을 줬어요. 티비를 볼 수 있는 쿠폰이었어요. 그때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나마 그 쿠폰 가지고 만화방에 모여서 티비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만화들을 많이 보았는데 저는 진짜 만화방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셨어요. 만약 갔다가는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았겠죠.

또 얼마나 제 공부를 챙기셨냐 하면, 방학 때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꼭 숙제 검사를 하셨어요. 개학 전날 "야 숙제 가져와!"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조금이라도 숙제를 덜 했으면 그동안 해놓은 걸 모두 찢어버리셨어요. 무조건 100퍼센트를 다 해야지 만일 10퍼센트만 못 하고 남았어도 90퍼센트 해놓은 숙제를 모두 찢어버린 거예요.

그처럼 아버지는 엄하게 저를 가르치셨어요. 아마 그런 일들이 쌓여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엄하게 나무라고 꾸중하실 때 아버지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썩 좋지는 않아요.

아무튼 꼭 그런 일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서로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정말 일년에 열 마디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필요할 땐 주로 어머니하고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서 36년생이시니까 6·25 당시 14살이셨을 거예요. 어려서 참전은 못 했어도 어느 정도 그때 피난 간 일이라든가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경험한 6·25 때 일을

알고 싶어도 서로 대화가 없으니 그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 때 얘기는 어머니나 다른 사람에게 그저 귀동냥으로 얻어들은 것뿐이에요. 저는 6·25 전쟁이 끝난 지 3년 후에 태어났으니까요.



국민학교 때의 가족사진
맨 앞줄은 이재환과 두 여동생, 가운데 줄은 부모님, 맨 뒤는 아버지 바로 아래의 고모

아버지의 사진 취미

평소 아버지와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지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 취미가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께서 성동공고 다니실 때 전자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사진 찍기를 좋아하셨어요. 소장하신

카메라도 진짜 고급이었어요. 줌이 있는 걸로. 제가 봐도 대단했어요. 카메라는 아버지께서 사진에 관심이 많으니까 할아버지께서 사주셨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부자이셨으니까 그 당시 최고급 독일제 카메라를 사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찍은 사진을 본인이 집에서 현상, 인화까지 다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사진 작업 하시는 걸 가끔 본 기억이 있어요. 빛이 들어가지 않게 밤에 이불을 푸욱 뒤집어쓰고서 하세요. 찍은 사진필름에 야광 전구 세 개를 얹어놓고 그거 보면서 화학물질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사과 박스처럼 생긴 나무 상자에 전구를 껴서 인화지 올려놓고 인화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사진 확대기가 없어서 확대는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작업하신 사진은 전부 크기가 작아요.

옛날에 살았던 한옥의 다락방에는 사진을 현상하는 화학약품들이 아주 많았어요. 아버지께서 워낙 사진을 많이 찍어서 지금도 집에 깡통이나 사진첩에 보관해둔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만 간직하고 계신 사진도 있는데, 그건 지금도 제가 함부로 꺼내 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와 정각사

제 어머니 고향도 포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같은 동네 이웃끼리 결혼을 하신 거지요. 결혼 후에는 고향인 포천을 떠나 삼

선동에서 사셨어요.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집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의 정각사(正覺寺)[17]에 다니셨어요. 한양도성 성곽 아래 비탈진 언덕에 있는 아담한 절입니다. 조계종 계열의 우리나라 최초 비구니 절로 유명해요. 그런데 당시 정각사 주지로 광우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불교계에는 잘 알려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경주 이씨에다가 또 우(雨)자 돌림으로 할머니 항렬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정각사를 더 열심히 다니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를 따라 정각사에 다녔어요. 정각사는 조선 시대의 석가모니불화를 모신 절로도 유명합니다.

예부터 절이 있는 곳은 명당자리잖아요. 좋은 자리에 절이 들어서지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절이 있는 주변에는 일반 민가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정각사는 삼선동 마을의 민가와 거의 붙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정각사 바로 아래로 한옥마을이 즐비하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많이 아쉬워요. 삼선동 한옥마을이 그대로 잘 보존되었더라면 북촌마을이나 서촌 못지않게 아주 좋은 관광 코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많던 한옥은 두세 채 정도 남고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게 안타까워요.

17 정각사는 비구니계 선각자 태허당 광우 스님이 지었다. 1925년 경북 군위에서 태어난 스님은 15세 때인 1939년 직지사에서 성문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2007년에는 조계종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를 처음으로 품수 받았다. 전국비구니회 회장을 역임한 스님은 2019년 7월 18일 오후 4시 5분 경 주석하던 성북구 삼선동 정각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80세, 세수 95세. 스님은 "떠나는 바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왔다가 갈 뿐이다."라는 임종게를 남겼다. 광우 스님은 경주 이씨 익재공파 후손이다.(출처 : 경주 이씨 종친회 카페 & 불교저널)



삼선동 정각사 3층 석탑과 미래탑
오른쪽 3층 석탑은 고려 시대 것이며, 왼쪽 유리탑은 미래탑

제가 젊었을 때부터 꿈꾸어오던 삼선동 꿈의 한옥 탐방길이 있어요. 제가 그렸던 삼선동 탐방코스는 낙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낙산 정상에서 멀리 펼쳐진 북한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삼선동 동네를 눈으로 한 바퀴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양도성을 끼고 걷다 그 아래의 정각사와 장수마을로 내려와서는 수백 년 세월의 역사가 쌓인 삼선동 한옥마을 가운데를 느리게 걷는 거죠. 그러다가 삼군부 총무당을 지나면서는 조선 말기에 힘없는 약소국가였기에 당해야만 했던 뼈아픈 우리의 과거도 되돌아보는 거지요. 그렇게 마을을 쭉 따라서 내려가면 성북천이죠. 지금도 성북천 산책을 하다 보면 집오리나 먹이를 먹으러 오는 새들이 간간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어릴 적엔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쇠백로나 노랑발 쇠백로 등 지금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새들이 성북천에서 노닐었어요. 삼선동 한옥

이 잘 보존되었으면 아마 제가 꿈꾸었던 대로 아주 멋있는 탐방코스가 되었을 거예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들이 삼선동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용하던 정각사 옆에는 어느 날 지나다 보니 느닷없이 마을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땅을 파는 포크레인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또 재개발 들어간다며 마을 골목길은 온통 난민촌처럼 지저분하고 시끄럽습니다. 조만간 저희도 평생을 살아온 삼선동을 떠나야 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차장도 새로 짓고 동네를 재개발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나마 남아 있던 옛날의 소중한 흔적들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정각사(정면의 기와지붕 집) 옆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 모습.
정각사가 곧 와르르 무너져내릴 듯 아슬아슬하다.



재개발 공사에 들어간 동네 모습(이재환의 집 바로 뒷길)

05

꿈의 200살, 희망의 나래를 펴다

독락당(獨樂堂)

사춘기인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였더라구요. 옛날부터 교회가 그 역할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경신고등학교가 처음엔 미션스쿨이란 걸 모르고 간 거예요. 입학을 하니까 목사 선생님이 "동네 교회에 가서 목사님 도장을 받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성경 점수 안주겠다." 하며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휴 어떡해! 이거 안 되겠다.' 싶어 한참 생각하다 저희 집 앞 언덕바지에 삼선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갔어요.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도장을 흔쾌히 찍어 주시더라구요. 가보니

까 그 교회에 한 동네에 같이 살던 초등학교 동창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청년회 회의를 들어가 보니 어우! 남녀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서 대화하고, 놀고 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도장만 받아오고 교회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 바람에 3년을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청년회에도 가입하구요.

원래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인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불교 신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점수 때문에 도장만 받으며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3년을 열심히 교회에 다닌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건 아니구요. 솔직히 교회에 다닌 배경에는 여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았던 거예요. 또 추수감사절이다 크리스마스다 하면서 그럴 때는 선물도 주고 좋았어요. 그리고 성당에도 좀 다녀봤지요. 아주대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맨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같이 먹었던 이성효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천주교 신부가 되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의 영향으로 한동안 성당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인 제가 기독교 교회도 나가보고 천주교 성당도 다녀보고 그랬네요.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보고. 그러다 보니 세 종교를 다 다녀본 셈이네요. 허허허….

그렇더라도 대학 생활은 종교와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주구장창 그냥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아르바이트하느라 바쁘게 산 거지요. 등록금 마련하려구요. 그때 연애를 해본 거라고는 가끔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미팅을 하거

나 학교 축제 때 몇 번 여학생들과 만난 것밖에 없었어요. 데이트는 주로 커피숍에서 했죠. 유명한 곳이 명동 쉘부르가 있었고, 외대 앞에 있는 커피숍에 많이 갔어요. 뭐 그냥 잠깐 만나는 정도지 무슨 연애 감정으로 여학생을 만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럴 시간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뿌리는 불교잖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다시 절에 열심히 다녔지요. 그런데 어쩌다 마음에 맞는 여자를 만나면 모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 종교가 안 맞는 거예요. 대화의 코드가 안 맞으니까 결국 두세 번 만나다가 그만두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집안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하고 불교 믿는 사람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였어요. 종교문제도 그렇지만, 제가 결혼적령기에 들었을 때 혼인 얘기를 꺼내면 여자 쪽에서는 제가 '장남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댁 식구가 많으니까 시집살이 하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IT분야 쪽 초창기 때 저의 학원강사 생활은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결혼문제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정보처리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때는 월급이 꽤 많았어요. 웬만한 대기업 직원보다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위에 여학생 수강생들이 들끓었죠. 여학생들과 어울려 즐겁게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저 좋다고 하는 여학생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한 사람하고 결혼까지는 못 가겠더라구요. 결국은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40대에서 50대까지 휙휙 지나가 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어느 날 제 주위를 돌아보니 싱글인 거예요. 하지만 후회나 아쉬움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외롭지 않느냐구요? 아니요, 저 혼자서도 즐겁게 잘살고 있습니다. 고독이나 외로움 같은 걸 느낄 틈도 없이 열심히, 또 바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제 방 이름도 독락당(獨樂堂)이라고 지었어요. 홀로 독(獨)자에다가 즐거울 낙(樂), 혼자서도 즐거운 방이에요.



서재에 걸려있는 독락당(獨樂堂) 서각 (이재환 작품)

두 개의 벽을 깨다

저는 평생을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과 난청이라는 높은 벽과 맞닥뜨리며 살아왔어요. 그 두 개의 벽은 알게 모르게 늘 제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기도 했죠. 그런데 작년 봄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를 모시고 신설동의 보청기 대리점을 갔어요. 칠순을 넘으시면서부터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고 계세요. 전에는 아버지 보청기를 바꿔드릴 때가 되면 변산에 사는 여동생이 새것으로 사다 드렸어

요. 그런데 평소에 저와 말씀을 잘 안 하시던 아버지께서 왠지 그날은 보청기 사러 저와 함께 보청기 대리점에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청각 장애자 등록을 하면 보청기 살 때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대리점 주인이 말하길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청각 장애자 등록을 하면 보청기를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아버지께서 여태 등록을 안 하셨냐면서요.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이면 장애인으로 인증받아 보청기 살 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그걸 모르시고 자기 부담으로만 사셨던 거죠.

그래서 청각 장애 진단을 받으러 아버지 모시고 곧장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갔죠. 검사 결과 60데시벨 이상이 나와서 아버지께서는 인증 대상이 되더라고요. 의사 설명으로는 청각 장애 5등급에 해당하며, 판단 기준은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런 전문적인 건 몰라도 아무튼 장애인 판정을 받고 인증서까지 받았어요. 65세 이상이셔서 검진비도 무료였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저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저도 장애자 등록 대상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수치가 나왔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와 함께 보청기를 싸게 살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은 며칠 후, 장애인 등록도 하고 보청기도 샀어요. 값이 꽤 비싼 보청기였는데 국가보조금이 있어서 거의 무료로 산 거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해서 제 생애에 처음으로 보청기를 꼈어요. 그러자 '왜 이걸 진작 안 했을까! 세상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정말 돈을 얼마든지 들여

서라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성능이 더 좋은 보청기를 아주 싸게 사서 좋아하셨어요. 진작에 보청기를 꼈었다면 진짜 제가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하버드대학도 갈 수 있었겠다, 싶더라구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물리하고 수학은 정말 잘 봤어요. 그런데 형편없는 점수가 국어, 영어였죠. 이 과목은 귀로 들어야 하잖아요. 많이 듣고 그러면서 간접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못 들으니까 제 고집대로의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스스로 깨달은 것도 있지만 못 깨달은 게 더 많아요. 좀 더 일찍 보청기를 끼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잘 듣지 못해서 오히려 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됐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야 하겠다, 라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제가 '에이 저거 껴봐야 뭐 별 차이가 있겠냐.' 라며 보청기 성능을 너무 믿지 않은 탓도 있어요. 저의 자만이고 잘못이었죠. 그래서 제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한 거였어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기회가 있어도 싫고 잘 안 갔어요. 옛날엔 회식 끝나면 뒤풀이로 회식 자리에서 꼭 노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노래도 잘 못 하는데다 잘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과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회식이 싫었던 거예요.

또 강의할 때 일화를 얘기하면, 제가 강의한 서울정보처리학원 건물이 7층짜리였는데 2층에서 5층까지 네 개 층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3층에서 강의를 하면 5층까지 다 들렸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소

리를 그렇게 크게 한 거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옆 강의실에서는 제 강의 소리가 다 들린다며 난리가 나죠. 조용조용히 강의하라고. 그런데 저는 귀가 안 들리니까 남들도 그런 줄 알고 자꾸 크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작년 봄에 아버지 모시고 보청기 대리점에 갔다가 바로 해답을 찾은 거죠. 남들은 몰라도 저는 그게 기적 같아요. 보청기를 끼고 새로운 세상을 찾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지금부터는 무엇이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래서 그동안 못한 웬만한 교육은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이번에 성북문화원의 마을아카이브팀 프로그램에 구술자로 참여하여 대화가 가능한 것도 모두 보청기 덕분입니다. 만약 예전처럼 보청기를 끼지 않았더라면 저는 인터뷰에 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성북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한테 예전에 있었던 일도 간간이 얘기도 해주세요. 저도 잘 들리니까 아버지와 소통을 할 수 있어 무척 고마울 따름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삼선1동 경로당 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조금씩 컴퓨터를 가르쳐드렸는데 지금은 아주 잘 하세요. 경로당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컴퓨터로 멋지게 만들어서 삼선동 주민센터, 성북구청, 성북구 노인회 등 관련 기관에 보내세요. 제가 봐도 아버지께서 훌륭하게 컴퓨터를 다루고 계세요. 아버지 컴퓨터 실력이 느시는 만큼 저와 소통하시는 기회도 많아졌어요. 그러고 보니 그동안 저를 가로막고 있던 아버지의 엄한 벽과 난청, 두 개의 높은 벽이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60세 환갑까지는 저의 전생(前生)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대로 살아온 삶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으니까요. 그 대신 60세 이후의 삶은 제 의지대로 살아가는 진짜 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후생(後生)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 200살까지 살 거예요."

왜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죠? 안 죽을 수 있잖아요.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안 죽는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200살까지 살 거에요. 200살까지 살도록 제 생활 패턴을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2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맞추면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저만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이라는 사람도 말했어요. 그는 아이큐 165인 사람으로 인공지능의 대가에요. 이 사람이 "인간은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분기점이 언제냐 하면, 2045년쯤 되면 인체의 모든 걸 교체하여 '죽지 않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치아가 없으면 이를 새로 끼우면 되고, 장기가 없으면 장기를 새로 만들어 끼우면 되고, 마지막에는 뇌까지 새로 끼우고, 그렇게 모든 걸 새로 만들어 끼우면 마침내 인공지능의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과학이 무서워요.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는 것이.

아무튼 사람들을 만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칫 제가 허무맹랑

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남들이 제 얘기에 귀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저 200살까지 살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러면 미친놈 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나가는 거지가 "내일 전쟁이 일어날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하고,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하고 신뢰도를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는 거지가 "야 내일 전쟁이 일어난대." 그러면 믿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면 조금 신뢰가 가겠죠. "오,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죠. 바로 그 얘기에요. 신뢰도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미친 소리라고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원래 ICBM이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란 약자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최신 ICBM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아주 더 멋있는 걸 만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ICBMA'입니다. ICBM의 개량형 ICBMA! I는 IOT라고 사물인터넷, C는 클라우딩시스템, 그다음에 B는 빅데이타, M은 모바일, 마지막 A는 인공지능 AI에요. 이 중에서 앞에 4개는 수동적이지만 인공지능은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무섭다고 했던 거예요. 수동적이라는 건 사람이 컨트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능동적인 거는 자동이니까 나를 해칠 수도 있어요.

허무맹랑한 미친 소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20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백 살에 노벨물리학상 받고, 백 오십 살에

노벨평화상 받고, 2백 살까지 가면 노벨의학상 뭐 그런 거 주겠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2백 살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200살까지 살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냐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드리지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주제를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분, 레이 커즈와일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허허허….



2019 성북생활문화축제에서 진행을 맡은 이재환

“제 인생 2막의 콘셉트는 교육입니다.”

제가 2006년 50세가 되면서부터 트럼펫을 배웠어요. 처음엔 그냥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트럼펫은 악기 중에서도 배우기가 까다롭다고 할 수 있죠. 오보에하고 트럼펫이 좀 까다로워요. 소리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음악을 음악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음악 왜 하시죠? 음악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에요? 힐링? 그런

데 그런 것이 보입니까? 확인이 돼요? 그냥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확인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음악도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음악이라는 파동이 움직이면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 즉 힘이 생겨요. 또 그 힘은 동양에서 말하는 기(氣)라고 할 수 있어요. 기라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기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힘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전기가 움직이는 거에요. 그게 보이지가 않죠. 요즘 유행하는 양자역학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기예요.

실제로 제가 집에서 트럼펫을 불며 기를 볼 수 있는 실험을 해봤어요. 유리잔을 갖다 놓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불어요. 그러면 특정 음에서 유리잔이 막 떨려요. 소위 공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리 크기에 따라 떨림이 달라요. 트럼펫을 불면 같은 주파수끼리 울려요. 풍수지리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동기감응(同氣感應)[18]이란 말인데 그게 에너지예요. 움직이는 게 에너지고 힘이잖아요. 트럼펫을 불어 소리를 주니까 유리잔이 움직였어요. 그런 실험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규명이 되면 굉장한 거예요. 기라는 실체가 밝혀지는 거죠.

18 사람의 몸, 뼈, 세포에 특정한 기운이 있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텔레파시 마냥 서로 연결되어 운이나 기운 같은 것을 주고받는다는 이론.(출처 : 나무위키, 검색일 : 2020.12.28.)



이재환의 서각 작품, '동기감응'

조선 시대 후기에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19]이 나오잖아요. 율곡 성리학에서 나오는 이기(理氣), 이치 리(理)자에다 기(氣)잖아요. 물리학에서도 리(理)는 정적이고 기(氣)는 동적이에요. 그게 서로 같이 맞물려야 해요. 이(理)만 있어도 안 돼요. 기(氣)가 나오려면 이(理)가 있어야 나오거든요. 이걸 연구를 해보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작지만 활용도가 큰 에너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작은 에너지, 혹은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데 공짜로 얻어 쓸 수 있는 에너지죠. 앞으로는 그걸 찾아내는 일이 중요해요.

자, 기(氣) 얘기는 이쯤에서 접고 다시 트럼펫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제가 트럼펫을 배우면서 연주단 밴드에 가입을 했어요. 밴드 이름이 처음에 모집할 때는 '이젠'이라고 했어요. 조용필 씨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노래에서 따온 거예요. '이제는' 그런 뜻이었죠.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밴드 활동을 쉬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함께 공연도 다니고 그랬었지요.

19 성리학에서 이와 기의 결합으로 모든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성리학이론. 조선 초기에는 이기이원론이 주류를 이룬다. 정도전(鄭道傳)과 권근(權近)의 이선기후의 입장이나, 성리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이황(李滉)의 이존기비(理尊氣卑)의 주장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기에 대한 이의 능동성과 주재성(主宰性)을 강조한 이황의 이원론적인 시각은 그 뒤 이현일(李玄逸)·이상정(李象靖)·이진상(李震相) 등 영남학파로 이어져 이일원론으로 전개되고 있다.(출처 : 다음백과)



이재환의 서각 작품, '성북 아재밴드'

이제 제가 트럼펫을 웬만큼 불게 돼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혹시 청계 8가 황학동 풍물시장이나 동묘 옆 벼룩시장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수만 가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와 있는데 값도 엄청 싸요. 옷, 신발, 먹을 거 등등 뭐든 지 다 있어요. 청계천 벼룩시장이 저한테는 보물창고에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가서 둘러봐요. 아이들 교육 시키려고 얼마 전에 거기서 트럼펫 10대를 샀어요. 얼만 인줄 아세요, 하나가? 평균 5만 원, 그리고 같은 관악기 계열인 유포늄이나 바리톤은 10만 원대에 샀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 트럼펫 교육을 앞으로 과학과 접목을 시켜서 하려고 해요. 보통 한 악기의 전문 연주가가 되려면 '10,000시간의 법칙'을 적용해요. 그만큼 많은 숙련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걸 '1,000시간의 법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000시간에 전문 연주가가 될 수 있게 말입니다. 또 교육은 쉽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교를 활용하려고 해요. 그다음은 방과후 학교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돈이 생기면 좀 더 멋지게 꾸밀 생각이에요.

나중에 제가 폐교를 구하면 교육장 이름을 삼락서원(參樂書院)이

라고 할 겁니다.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 서원이란 뜻이죠. 그 세 가지 즐거움이란 먹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이 삼락(參樂)에 맞춰 각각 세 개의 방을 두고서 하나는 귀가 즐거운 이락당(耳樂堂), 그다음은 입이 즐거운 구락당(口樂堂), 또 그다음은 눈이 즐거운 안락당(眼樂堂)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 세 가지 즐거움의 교육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제 인생 60이후 후생(後生)의 콘셉트는 교육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혁신적인 교육을 해나갈 것입니다. 과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재환의 서각 작품, '삼락서원'

그리고 제 스스로도 2006년부터 트럼펫을 배워서 밴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10여 년 전에 배운 돌이나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서각(書刻)을 해오며 전시회에 작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목 조각, 캘리그라피, 캐리커쳐, 펜드로잉 등도 배우고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여럿이 함께 가면 멀리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율곡 선생님의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고 서두르지 말며'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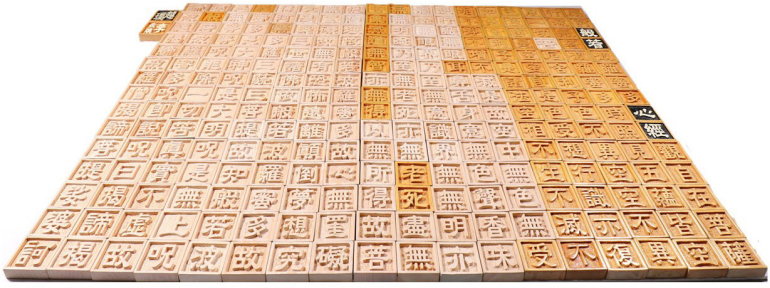
이재환의 서각 작품, '서두르지 말고 쉬지 말고'



전시회에 출품한 이재환의 서각 작품



이재환의 서각 작품들







이재환의 서각 작품, '반야심경'

06

이재환과 함께 걸은「삼선동 드림 탐방길」
– 포토앨범

삼선동 토박이 이재환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아름다운 삼선동 한옥마을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먼 훗날 관광객이 찾으면, 그때 "무척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맞으며 그가 앞장서서 동네 골목길을 요리조리 안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옥마을이 사라진 지금,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가을빛이 고운 10월 어느 날, 사라진 꿈의 아쉬움을 안고 이재환과 삼선동 주민기록단 일행은 그가 꿈꾸던 「삼선동 드림 탐방길」을 자신이 그려온 손지도를 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 삼선동 주민기록단 편집자 주


숙정문
혜화문
장수마을
장수마을
돈의문
흥인지문
숭례문


성북천
용제과
1968
보문사
탑골승방
석굴암
경동고교
삼선초교
삼군부 총무당
우리집
정각사

「삼선동 드림 탐방길」

탐방은 흥인지문(동대문)에서 시작했습니다.



1. 흥인지문

이재환 : 여기가 옛날 전차 종점이에요. 저 동대문 옆으로 전찻길이 있었죠. 그 위로 전차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녔어요. 전차가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타기도 하고, 매달려가기도 했어요.



2. 동대문호텔

이재환 : 저기 동대문호텔 보이죠? 60년대에 지은 당시 최고급 관광호텔이었어요. 개업할 때는 이름을 이스턴호텔이라고 했죠. 유명한 신라호텔보다 아마 2, 3년 먼저 지었을 거예요.



3. 동대문호텔 정문 앞 표지석

이재환 : 어, 언제 여기에 이런 걸 세웠나 모르겠네요. 처음 보는 거예요.



4. 경성궤도회사 터

이재환 : 아, 맞아요. 뚝섬 갈 때 여기서 전차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때 타고 다닌 게 전차가 아니라 '궤도전차'로 협궤전차였네요. 그리고 동대문호텔 자리가 궤도전차 회사 건물이 있던 자리구요. 아무튼 그때는 뚝섬이나 광나루, 한강 등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갔죠. 저는 광나루유원지에 자주 갔어요.



5. 평화시장

이재환 : 저기 동대문 평화시장이 보이네요. 예전과 참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오바로크한 봉조 양말을 자전거에 싣고 창신동 고개를 넘어 다니던 기억이 생생해요. 또 간혹 양말공장에서 판매할 상품을 배달해달라는 부탁이 있을 땐 자전거에 싣고 바로 저 평화시장 상인들에게 갖다주곤 했어요. 저기 왼쪽의 동대문플라자 건물 자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운동장인 동대문운동장이 있었구요. 오랜만에 와서 보니 옛날 어렵게 살던 때가 생각나며 감회가 새롭네요.



6. 낙산길

호젓한 한양도성 성곽의 낙산길을 따라서 걷습니다. 소슬한 가을바람이 600년 성곽의 담장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나갑니다.

이재환 : 예전에는 성곽 밑으로 이런 길이 없었어요. 그냥 잡목과 풀이 무성한 풀숲이었지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전차를 타고 동대문 종점에 내린 날에는 저기 창신동 언덕을 넘어서 다녔어요.



7. 낙산

125미터 낙산 정상에 섰습니다.

이재환 : 낙산은 낙타의 등을 닮았다고 해서 낙타산이라고 했다가 지금의 낙산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저기 북한산 백운대며 인수봉 보이죠? 저 아래 한성대학교와 삼선동 마을도 있구요. 가슴이 좀 답답할 때는 여기 올라와서 세상을 휘둘러보며 호연지기를 키우기도 했죠. 예전에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정도전 선생이 저기 보이는 북한산 보현봉에 올라가 내려다봤듯이 말예요. 허허허….



8. 성문

이재환 : 이 암문을 지나면 성북구로 넘어갑니다. 그럼 바로 삼선동이 눈앞이죠. 암문 밖으로 보이는 흰 건물이 한성대학교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암문 안쪽은 종로구, 그러니까 예전엔 임금님이 계시던 성 안이죠.



9. 장수마을

삼선동 달동네 장수마을의 비탈진 골목길을 내려갑니다.



10. 장수마을 표지석 앞에서

이재환 : 저 20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겁니다. 어떻게 200살까지 살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11. 카페 '마실'

정각사 가기 바로 전 성곽길에서 만난 예쁜 카페 '마실'입니다.



12. 3·6·9 성곽 마을

동화 속에나 나옴 직한 환상적인 카페 옆에 '3·6·9 성곽 마을 이야기'란 팻말이 있습니다.

'3·6·9'는 '삼선 재개발 6구역'의 앞 글자를 따서 붙인 거라고 합니다. 주민들 참여를 통해 성곽 마을의 특성을 보존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생태계' 마을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하고 예쁜 '마실' 카페가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13. 정각사

이재환 : 여기는 저희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정각사예요. 저도 어머니를 따라 이 절에 다녔어요. 광우 스님이 창건한 절로 오랫동안 주지 스님으로 계셨는데 작년 여름에 열반하시고 지금은 정목 스님이 맡고 계세요.



14. 삼군부 총무당

이제 삼선동 마을 한가운데의 '삼군부 총무당'에 왔습니다.

이재환 : 이 아름다운 팔작지붕의 한옥 건물은 조선 시대 군의 최고사령부였어요. 지금의 국방부와 비슷한 거죠. 총무당, 청헌당, 덕의당 세 개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30년경에 지금의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있었던 것을 옮겨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덕의당은 없어지고, 청헌당은 태릉의 육군사관학교 안으로 옮겼어요.



15. 한양도성

혜화동의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과 경계인 한양도성 성곽을 지납니다.

이재환 : 여기 성곽을 쌓은 돌의 모양이나 크기가 다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색깔도 다르구요. 그건 성을 축조, 또는 개축한 시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또 조선 초기나 중기에 쌓은 성곽의 돌은 이끼가 껴서 검게 보이고, 70년대 이후 복원이나 개보수한 부분은 비교적 밝은 색이구요. 새로 복원한 돌들도 수백 년 지나면 세월의 두터운 더께가 검게 끼겠죠.



16. 재개발중인 골목

골목을 지나는데 동네가 재개발 중이라 폐허처럼 어수선합니다.



17. 집 앞 골목

이재환 : 집 앞 골목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골목을 가로막고 있는 건물이 한 성대 중문 쪽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다가구주택은 1992년에 종전에 살던 한옥을 허물고 다시 지은 거예요.

오다가 보셨지만 저희 집 바로 뒤까지 재개발 공사를 하느라 동네가 난리예요. 그런데 저희는 큰아버지 때부터 80여 년을 살아온 토박이라서 그런지 이번에 재개발 구역에서는 빠졌어요.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꾸 변하니까요.



18. 삼선초등학교

이재환 : 제가 다녔던 삼선초등학교예요. 반백 년 전 개구쟁이 친구들과 구슬치기도 하고 팽이치기도 하고 놀며, 학교 앞 문방구에서 아이스께끼와 달고나를 사 먹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친구들과 놀던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19. 경동고등학교

이재환 : 경동고등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옛날 추억이 떠올라요. 큰아버지께서 졸업한 학교이고, 또 제가 중학교 갈 때 바로 이 학교 강당에서 뺑뺑이를 돌렸잖아요. 제가 1956년생 뺑뺑이 입학 1호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경동중학교와 경동고등학교가 둘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는 삼선중학교로 통합되고, 삼선고등학교는 경동고등학교로 통합되었죠.



20. 보문사

이재환 : 여기 보문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드릴 게 있죠. 보문사는 현재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의 본산입니다. 원래 고려 때 지은 오래된 절인데, 지금 남아 있는 옛 건물로는 조선 영조 때 지은 대웅전이 있어요.

그런데 절 안에 경주 토함산의 석굴암과 똑같이 닮은 석굴암이 있어요. 서울 도심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보문사 석굴암은 1972년 부처님 오신 날에 착공하여 3년 6개월의 역사 끝에 점안식을 가졌다고 해요. 당시 주지였던 은영 스님이 구상하여 공사비만 1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석불암이라 하였다가 나중에 석굴암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죠.

또 정문 우측에 은영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이 보이죠? 아, 정면에 내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현수막도 걸렸네요. 석굴암을 만든 옛 주지 스님의 이름을 따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름도 '은영'으로 지었다고 해요.



21. 성북천

이재환 : 한동안 폐수와 오수가 흐르고 썩는 냄새가 나던 성북천이 이렇게 말끔히 복원되어 다시 태어났어요. 저도 작년에 보청기를 끼면서 새롭게 태어난 저 성북천 맑은 물길처럼 새로운 삶의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긴 강사 활동이 남들을 위한 전생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후생에서는 제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치며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계속 도와주고 지켜봐주세요.



22. 한옥집

오전 10시에 동대문을 출발한 「삼선동 드림 탐방길」 여정은 오후 1시경에 끝났습니다. 삼선동 골목길을 함께 걸은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 넘쳤습니다. 점심은 성북천 개천 변의 한정식 전문음식점 '한옥집'에서 먹었습니다. 삼선동 토박이 이재환이 들려주는 옛 한옥마을에 살던 때의 추억담을 들으며….

나의 꿈, 나의 미래

지금까지의 삶은 어려서는 부모님의 통제 아래,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의 통제 아래 살아온 삶이었다. 나는 이것을 나의 전생(前生, 60세까지의 삶)이라 하고자 한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부모님과 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나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개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것들이 아닌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려 한다.

그러자면 지금까지의 삶의 방법을 뛰어넘어야 하겠다. 즉, 패러다임(Paradigm)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나의 호도 월리(越理)이다. 또한 용기(用氣)라는 호도 사용한다. 용기는 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다. 나는 건강하게 200세까지 살아가려 한다. 2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겠다. 앞으로 135년 후의 일이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100세 때는 노벨물리학상을, 150세 때는 노벨평화상을, 200세 때는 노벨의학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세웠다. 모든 사람이 코웃음 쳐도 좋다. 200세까지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200세까지 살아내고서, 그때 건강하게 살아온 근거를 제시하면 분명 노벨의학상을 주리라 생각한다. 안 주면 달라고 떼를 쓸 것이다.

내가 전생에서 가장 많이 공부한 것은 음악(트럼펫 연주)이다. 물론 미술도 좀 했다. 음악을 음악으로만 끝내면 실용적이지 못하다. 역시 미술도 미술로만 생각하면 실용적이지 못하다. 과학이 접목되어야 실용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과학을 모르는 예술가는 진정한 예술가가 아니고, 예술을 모르는 과학자 또한 진정한 과학자가 아니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건강한 삶이 되려면 하루에 꼭 3가지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입으로 먹고, 둘째는 귀로 먹고, 셋째는 눈으로 먹어야 한다. 우리는 늘 상 입으로만 먹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귀로 먹는 것은 음악이고, 눈으로 먹는 것은 미술이다. 음악을 해야 하고 또한 미술도 해야 한다.

앞으로 내 삶의 청사진은 삼락서원(參樂書院)을 건립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삼락서원은 입이 즐거운 구락당(口樂堂), 귀가 즐거운 이락당(耳樂堂), 눈이 즐거운 안락당(眼樂堂)으로 구성할 것이다. 운영자금은 교재 집필(1,000만 부 목표)과 발명으로 충당하고 교육비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운영할 것이다. 단 교육 대상은 반드시 자녀와 부모, 자녀와 조부모, 자녀와 증조부모, 자녀와 고조부모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같은 세대들끼리만 모여 교육을 하면 갈등이 심해져서 교육이 어려워진다. 서로 간의 시기, 질투가 심해지는 현상이 온다. 자녀와 부모 세대가 같이 어울리면 배려와 양보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자동으로 인성 교육도 되는 것이다.

3가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교육은 언제나 과학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끊임없는 발명이 이루어질 것이고, 실용성을 찾아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생산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연주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간다.

거시세계(천문학)와 미시세계(양자역학, 미생물)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 이 분야도 지속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것이 내 후생(後生)의 꿈이고 미래다.

2020년 11월

독락당(獨樂堂)에서

월리(越理) 이재환(李在煥)이 쓰다



이재환 생애사 타임라인Timeline

1899년 고조할아버지 이종화 대한제국 육군 참위(지금의 소위급) 임관
1901년 고조할아버지 이종화 부위(지금의 중위급) 진급
1904년 증조할아버지 이약우 대한제국 육군 참위 임관
1907년 대한제국 신식 군대 해산
1930년 삼군부 총무당 삼선동으로 이전
1930년 큰아버지 이원형 출생
1936년 아버지 이복형 출생
1946년 큰아버지 상경(경동고등학교 입학), 삼선동 한옥으로 이주
1949년 할아버지 졸, 아버지 이복형 상경
1949년 아버지 이복형 광희중학교 입학
1950년 6.25 전쟁 큰아버지 하사관으로 참전
1953년 아버지 이복형 성동공업고등학교 입학
1956년 아버지 이복형 결혼
1956년 이재환 출생
1958년 이재환 첫째 여동생 출생
1962년 이재환 막내 여동생 출생
1963년 이재환 삼선국민학교 입학
1964년 이재환 중이염, 늑막염(삼선초등학교 2학년)
1967년 삼선교 삼선상가아파트 착공
1968년 삼선교 나폴레옹과자점 개점
1968년 삼선교 삼선상가아파트 개업(나•가•다동 순)
1969년 서울지역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 도입(뺑뺑이 추첨)
1969년 이재환 서울시립농대병설중학교 입학(1년 재학)
1970년 이재환 경일중학교 전학(2개월 재학)
1970년 이재환 삼선중학교로 전학
1972년 이재환 경신고등학교 입학
1974년 이재환 막내 고모가 교사로 있는 풍도로 놀러가다(경신고 3년)
1976년 이재환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입학
1980년 이재환 아주대 전자공학과 졸업, 유성공고 교직 발령
1983년 이재환 서울정보처리학원 입사(IT강사)
1992년 삼선동 집(한옥) 철거 후 지금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신축
2005년 이재환 막내 여동생 미국 이민
2006년 이재환 트럼펫 배우기 시작함
2019년 이재환 보청기 사용

- 작성 : 전우영

삼선동 역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삼선동 지역

사진설명 : 사진 좌측 상단의 하얀 건물은 한성대학교 캠퍼스, 사진 우측 상단 숲 옆의 건물이 동숭동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사진 하단의 옥상이 삼선중학교 건물이다.

이 사진은 20여 년 전에 찍은 것으로, 사진 중간에 3층짜리 삼선시장아파트와 7층짜리 삼익맨션아파트가 보인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성북천 복원 과정에서 철거되었다.

삼선동의 위치와 역사

삼선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대략적으로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이 지나는 동소문로부터 낙산 아래까지가 포함된다. 동쪽으로는 성북구청을 지나 성북천이 경계가 된다. 성북동과 동소문동, 동선동, 보문동, 그리고 종로구의 혜화동과 동숭동, 창신동 등에 접해 있다.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교육 시설이 발달되어 있다.

삼선동이라는 이름은 혜화문 밖 동소문동, 동선동 일대의 평평하고 드넓은 들판을 삼선평이라 칭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돈암리에 속해 있다가 1936년 일제가 경성부를 확장하면서 경성부에 편입되어 돈암정이라는 일본식 동명이 붙었다. 1943년 서울에 구제(區制)가 실시되면서 동대문구에 속하였다. 이 시기에 전차가 혜화동에서 돈암동까지 연장되어 삼선동 지역을 지나게 된다. 그리고 1949년 성북구가 신설되면서 돈암동에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삼선동에는 사적 제10호인 한양도성,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호 삼군부 총무당 등의 문화재가 있으며, 성북천을 따라 성북구청, 성북경찰서 등의 주요 행정기관들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삼선동의 인구는 26,971명, 세대수는 12,672세대이다.

삼선동과 삼선평

삼선평은 삼선동 일대를 가리키는 옛 지명이다. 조선시대부터 혜화문 밖의 평평한 모래사장 같은 들판을 삼선평이라고 칭했는데, 삼선평이란 이름은 동네 남쪽의 옥녀봉에서 옥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세 신선과 놀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군대의 연병장으로 쓰였고, 남쪽 언덕은 사형장으로 쓰이기도 했다. 또한 개항기에는 도심과 가까운 넓은 공간이어서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1896년에는 최초의 근대적인 운동회가 개최되었고, 1906년 3월에 대한체육구락부와 황성기독청년회 간의 한국 최초의 축구 경기가 열렸다. 그리고 1907년에는 도산 안창호의 강연회가 열리는 등 민족계몽운동의 요처로 통하기도 했다.

삼선동과 삼선교

삼선동보다 '삼선교'라는 지명이 더 일반적인데 엄밀히 말해 삼선동과 삼선교는 다르다. 삼선교는 성북천에 있었던 콘크리트 다리이다. 혜화동 고개 넘어 삼선교와 돈암동 옛 전차 종점을 거쳐 미아리 고개로 이어지는 도로는 강북과 도심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성북천이 복개되고 삼선시장과 상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지명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성북구에는 조선시대 5군영의 하나인 어영청과 대한제국 친위대의 훈련장이 있었는데 지금

의 삼선교 근처(삼선평)에 위치했다.

삼선동에 얽힌 이야기

삼선동은 성북구 내에서는 상당히 집값이 비싼 지역 가운데 하나로,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가 발달되어 있다. 특히 남쪽의 언덕 쪽에는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져 아파트들이 위치하며 성북세무서 옆에도 재개발이 이루어져 새로 지은 깨끗한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또한 학교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남서쪽으로는 한성대학교와 한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경동고등학교가, 중앙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삼선초등학교가 있다.

성북구청과 성북경찰서, 성북세무서도 삼선동에 있다. 성북구의 주요 관청이 다 삼선동에 있는 것이다. 성북구청 뒤편 동쪽으로는 성북천이 흐르고 있다. 성북천은 옛날에 안감내라고도 불렸는데, 현재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으며, 개천에는 오리들이 노닐고 있다. 천변 양쪽으로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남쪽에는 종로구와 경계를 이루는 낙산이 있다. 성곽 바깥쪽 아래에는 '장수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 비탈진 골목에는 허름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삼선동은 지형적으로 남쪽은 높고 가파르며, 북쪽은 낮고 평평하다

삼선동 장수마을

장수마을은 성북구 삼선교로4라길 23-28(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장수마을은 한국전쟁 후 서울로 모여든 서민들이 움막, 천막집, 무허가 판잣집 등을 짓고 삶의 터전으로 삼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마을 뒤쪽의 한양도성 성곽 아래 가파른 구릉길을 따라 작고 나지막한 가옥들이 옹기종기 서로 맞붙어 있다.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자, 전면 철거와 획일적인 아파트 재개발이 아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에 주민협의회를 만들고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마을 내에 작은 카페도 열었고, 마을박물관을 만들어 전시회도 진행하고, 벽화거리도 조성하여 관광객의 발길도 늘고 있다. 2010년대부터 확산된 도시재생사업의 선구적 형태이며,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에 선정되었다.



삼선동 탐방길 장수마을 입구에서(왼쪽부터 전우영, 이재환, 박선자, 류옥희)

에필로그Epilogue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한 시인은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2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다소 뜬금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알고 나니 그는 200년을 꼬박 채우고도 아쉬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며 삶을 즐기는 그에게, 훗날 '오래보니 사랑스럽다.'는 말을 전할 날이 올 것이라 희망합니다.

- 김선정

그의 생애는 불꽃같은 열정으로 불태워온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스타 강사가 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마치 한 줌 샘물에서 시작하여 작은 개울이 되어 흐르다 마침내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본문 '정보처리학원 강사에 도전' 중에서)

- 남명희

어린 시절 아픔으로 답답했을 재환 어린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힘들었던 학창 시절 성실했던 재환 군에게 힘 나는 격려를, 좋아하는

일을 찾아 끊임없이 도전했던 청년 재환님에게 작은 응원을, 지금도 여전히 꿈꾸고 계획하는 이재환 선생님에게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술 같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 것은 참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 류옥희

노력과 열정으로 굴곡진 길을 헤쳐 오시고, 이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시는 이재환님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꿈꾸는 자 날아라! PER ASPERA AD ASTRA(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고난과 역경을 딛고 별들을 향해!

- 박선자

꿈이 많은 이재환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집에서는 여러 취미를 즐기시면서 독락(獨樂)하시고 이번 일처럼 선생님의 경험을 여럿과 나누는 동락(同樂)도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치(理致)를 넘어 200살까지 화이팅!

- 전우영


공가 안내문

이미지 출처

10쪽 : 이재환 그림

13쪽 : 성북문화원 제공(2019년 1차 면담 동영상의 한 장면)

16쪽 : 성종윤 촬영

22쪽 : 이재환 제공

25쪽 : 성북구청 제공

27쪽 : 서울삼선초등학교, 『三仙 60年史』, 2009, 25쪽.

28쪽 : 성북구청 제공

30쪽 : 성북구청 제공

33쪽 : 남명희 촬영

34쪽 : 성종윤 촬영

35쪽 : 이재환 제공

38쪽 : 이재환 제공

46쪽 : 이재환 제공

54쪽 : 다비치보청기 홈페이지

62쪽 : 이재환 제공

72쪽 : 이재환 제공

75쪽 : 이재환 제공

77쪽 : 이재환 제공

82쪽 : 성북문화원 편집

88쪽 : 이재환 제공

89쪽 : 이재환 제공

92쪽 : 이재환 제공

93쪽 : 이재환 제공

94쪽 : 이재환 제공

95쪽 : 이재환 제공

96쪽 : 이재환 그림

97쪽 : 이재환 그림

102쪽 : 이재환 제공

105쪽 : 이재환 제공

108쪽 : 남명희 촬영

109쪽 : 남명희 촬영

110쪽 : 남명희 촬영

116쪽 : 이재환 촬영

122쪽 : 이재환 제공

124쪽 : 성북문화원 촬영

125쪽 : 성북문화원 촬영

126쪽 : 성북문화원 촬영

127쪽 : 성북문화원 촬영(上, 下), 이재환 촬영(中)

128쪽 : 성북문화원 촬영

132쪽 : 이재환 그림

134~141쪽 : 남명희 촬영

144쪽 : 이재환 제공

146쪽 : 성북구청 제공

150쪽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제공

151쪽 : 남명희 촬영

154쪽 : 성종윤 촬영

낙산 아래 평평하고 넓은 지역인 삼선동은
역사가 깊은 공간입니다. 삼선동은 교통의
요지이면서 교육기관이 발달되어 있고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책의 주인공인
구술자 이재환님은 삼선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삼선동 '토박이'입니다. 삼선동은
재개발로 인해 점점 변화하고 있지만,
이재환님은 태어난 그 자리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삼선동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삶과 꿈도 이곳 삼선동에서 이어갈
것입니다. 책을 통해 IT 전문 강사로 오랜
기간 일했던 이재환님의 지금까지의 삶,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한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3090
9 791195 454433
ISBN 979-11-954544-3-3
비매품